



이슈와 눌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KOREA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S

발간사

목차

회기	일정(월)	세부내용	장소	쪽
1	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현장의 대응	부산시사회복지 종합센터	1
2	5	AI와 노인복지, AI 돌봄 등 디지털수용 (논문검토)	부산시사회복지 종합센터	23
3	6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솔로에이징」(도서)	동래구노인복지관	
4	7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어진샘노인복지관	
5	8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동래구노인복지관	
6	9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도서)	서면 지유명차	
7	10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참여연대 출간 복지동향.2024.3.)	부민노인복지관	
8	11	“나의 올드 오크”(영화) 최종평가회 : 자료집 발간 논의	동래구노인복지관	

함께한 이들

회장 조수경 금정구노인복지관

박시우 남구노인복지관

윤현주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정수홍 부민노인복지관

정지희 동래구노인복지관

최윤정 어진샘노인복지관

THEME #1

통
합
돌
봄

 <p>이슈와 농자 1회기</p> <p>활동 을 소 개 합 니 다</p>	활동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1. 포럼 참석		
제6회 부산사회서비스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제: 강혜규 선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p>가. <u>배경 및 정책 변화</u>: 고령화로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보건과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로 인해 돌봄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며, 중앙-지자체, 공공-민간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p> <p>나. <u>사회보장 정책 및 지역 기반 돌봄 경과</u>: 사회보장 정책은 소득 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도 사업을 추진했으며,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이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 및 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p> <p>다. <u>초고령화 대응 방향</u>: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 단계별 재가 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환경 조성, 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 통합 재가 기관 확충, 재택 의료 확대, 통합 판정 체계 도입,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모델 개발 등이 강조된다.</p> <p>라. <u>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u>: 법의 목적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p>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 지원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서비스 발전, 서비스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지역 중심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자체 역할 강화, 민간 영역 활성화 등이 있다.

마. 진전된 지역 돌봄 체계를 위한 과제: 돌봄통합 지원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마련, 민간의 서비스 준비 등이 필요하다. 주요 과제로는 제도 개선, 전달 체계 정비,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충분성 확보, 서비스 연속성 및 통합성 강화,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접근성 향상 등이 있다. 특히,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 보건-복지 연계 강화,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 지역 사회 주체 간 협력 강화,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전달 체계 혁신, 민관 연계 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개발, 인력 확보 및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서비스 확충, 인력 양성, 전달 체계 효율화와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토론

토론1 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부산시의 정책, 조직, 인력, 예산,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를 촉구
- 이용자 중심, 지역 중심,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강조
- 민간기관과의 수평적 협력 구조 개선 및 생활권 기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부산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등 통합 창구 필요

토론2 노법래 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 한국의 돌봄 지출 규모 및 정책 노력에 대한 평가 재검토 필요.
- 지역 주도적 성격의 강조에 동의와 더불어 지역의 극복 과제에 대한 논의 필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정책 방향성 논의 누락
- 돌봄 정책에 있어 "공감" 요소 반영의 중요성 강조

토론3 안혜경 대표(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안에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2. 주제 토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 민간 수행기관 관점에서의 제한점 검토

윤정

「통합돌봄지원법」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예방관리, 일상돌봄, 재가요양, 재택의료, 생애말기 관리 등 6대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법의 시행에는 재원 마련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며, 민간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조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법 실현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과 창구 마련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지역사회 돌봄은 ‘네트워크’라는 관점이 강조되지만, 이는 단순한 사례 관리 수준을 넘는 문제이며,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는 지속가능한 돌봄이 어렵다. 특히 의료와 복지의 단절된 구조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맞춤돌봄사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나, 돌봄의 주체인 기관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어 민관협력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제도 설계와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관은 전문기관으로서 제안을 주도하고, 돌봄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지회

「돌봄통합지원법」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돌봄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며, 돌봄 안전망의 완성도 향상, 유사 제도의 효율적 통합, 지자체 복지행정의 혁신,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의 주대상인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할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 간의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 편차가 크며, 일부는 통합돌봄을 저소득 사례관리 중심으로 오인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해진 만큼, 공공과 민간 모두 통합돌봄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구군 단위의 전담조직 운영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되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응급안심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돌봄의 체계적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민간을 실질적 협력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경

「통합돌봄지원법」의 근본적인 방향이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돌봄의 사회화, 예방적 접근, 기회 평등의 추구,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해당 법령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개인—맞벌이 가구의 아동,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은 노인 중심의 돌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적 책임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지자체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직제 정비,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을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로 보는 관점에 대해,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굴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성의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지역 자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전문기관으로서 어떤 이해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의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역할을 재정립하고, 선제적으로 전문기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수홍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십수 년간 이어져온 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기와 위험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현장에서는 돌봄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과거 복지관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인큐베이팅해온 핵심 인프라였으나, 지금은 시설의 노후화, 과도하게 누적된 정책사업 수행, 부족한 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법령은 의료와 요양(돌봄)을 함께 다루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돌봄에 더 중점을 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의료 또한 중요한 측면 만큼, 그들의 입장과 반응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계의 향후 방향성(인프라 구축, 인력 활용, 비용 구조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주

이번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재원 마련과 함께 부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 영역에 과도한 역할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지원법」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민간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고민해보았다.

우선, 기존의 맞춤돌봄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사업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며, 기존 맞춤돌봄지원사업의 인력을 활용하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재정비한다면, 대상자에게 보다 정교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업만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전담 부서(국 단위 등)가 마련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절되어 있는 돌봄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시우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 방안’ 포럼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 주요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한 법 시행을 위해 정책, 조직, 인력, 예산의 조정과 점검이 필요하며, 지역 중심의 운영 체계와 민간과의 협력 구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특히 인력 양성과 돌봄 기관 간 협업,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의료 분야의 적극적 참여,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의 강조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돌봄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보며, 민관협력과 정보 공유가 핵심임을 지적했으며, 전담 조직 설치의 어려움과 행정적 한계도 함께 제시되었다.

저출산·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통합돌봄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돌봄 제도에 대한 성찰 없이 새 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그리고 법의 본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행을 좌우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간이 실제 집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위수탁 구조와 전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리하여 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관과 민, 학계가 함께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한 조직, 인력, 재정 기반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슈와 농자

1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이슈와 놀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박시우

학습 내용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에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청취하고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눔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선임연구원)
 -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게 된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배경,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한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
 - 지역 사회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한 설명
- 토론1 문영미 시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부산시의 정책,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점검과 조정 필요, 지역 중심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민간기관과의 협력 구조 개선 및 구축, 시 차원의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필요
- 토론2 노법래 교수(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 기존 우리나라의 돌봄정책 및 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 시행에 대한 부분 강조와 지역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 논의, 노인 중심의 돌봄에 대한 부분 보완
- 토론3 안혜경 대표(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양성 및 제공기관 간의 협업, 지역 간의 협력 등 준비가 필요, 시와 구 등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토론4 김태석 주무관(부산시 복지정책과) : 돌봄의 방법으로 네트워킹 강조, 민관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의료분야의 참여 부족, 전담 조직 설치의 어려움, 시의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

나의 생각

- 저출산 고령화, 1, 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함.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에 시행해오고 있는

 이슈와 농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각종 사회서비스와 돌봄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에 대한 검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도 중요하지만,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과연 이 법을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조 발제와 토론의 주제가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수행의 역할을 민간에서 위 수탁의 형태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음
-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달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조직과 사람, 예산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현장의 준비와 대응

-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취합하고 분석·정리하여 시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돌봄통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조직의 구성, 인력체계의 재편 등 관과 민,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논의의장을 만들어서 의견들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이슈와 놀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윤현주	

학습 내용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 통합돌봄지원법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주거,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지역 단위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사례관리 역량, 사례별 모니터링 역할 등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상담 등 대상자별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서비스는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으로 확장된 복지 범주로서 민간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나의 생각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전면적이 시행에 앞서 재원 마련과 부산시, 지자체의 관심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에게 역할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그에 따른 민간에서의 대책 마련은 수반되어야 하기에 민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선 맞춤돌봄지원사업의 보완 및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결국 통합돌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기존에 맞춤돌봄지원사업의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영역을 추가한다면 대상자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역할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자체의 떠넘기식 사업 확대가 아닌 법 시행에 따른 관련 국 단위가 만들어져 체계적인 접근과 시행으로 분절되어 있는 돌봄 사업이 연결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사회복지현장은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됨에도 정부의 방침에 가능한 협조적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

 이슈와 눌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대비는 있어야 하기에 기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활용한 연계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보건소와의 협조는 보건, 의료 영역의 욕구가 높은 대상이 많은 만큼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건강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겠다.

또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재가센터 등 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예산과 인력 충원을 통해 대상자별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로 역할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담당 국 또는 과의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사업 전반을 함께 전개해 나갈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을 연결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지원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여 법 시행이 체계화되고 제도적 마련이 수반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다.

 이슈와 농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정수홍	

학습 내용

「통합의료지원법」 시행에 있어 민간의 역할 검토

- 서비스 제공 주체: 법 제15조~제19조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 핵심역할: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것
 - 서비스 제공여부 및 내용의 결정: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정보 제공 및 협력: 통합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게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 제출 의무
 -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지자체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여
 - 업무위탁: 위탁을 통해 통합지원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
 - 기타: 국가나 지자체는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나의 생각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십수년간 기존의 사회서비스부터 장기요양, 지금의 맞춤돌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당장 내년부터 해당사업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개선 건의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과 보안책은 검토되지 못했음.
돌봄종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인건비 등의 현실화, 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노출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대응방안,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수행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등 고려할 이슈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는 없음.

또한 서비스의 책무성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에게 이양하려할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음

해당 법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십수년의 유사한 사업들이 드러내었던 문제점과 한계점을 검토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는 서비스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관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슈와 농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정수홍	

현장의 준비와 대응

현장은 기존의 돌봄사업 수행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한계점을 합리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국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해당사업이 과거의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기존의 시설이 이를 부설센터나 부대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의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과 구축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준비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이 법의 시행은 돌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영역과의 연계·연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이하게도 이 법은 돌봄과 의료를 아우르고 있지만, 돌봄 즉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영역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단지 영역을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연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

 이슈와 놀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지희

학습 내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1.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통합지원협의체 : 시도 및 시군구에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가능
- 전담조직 설치운영: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관리, 통합지원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통합지원 관련기관, 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교류, 예산 확보·조정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치매정보시스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 전문인력 양성
- 전문기관 지정

2. 기대효과

- 사회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견인
- 돌봄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계기
- 통합적 운영과 유사 목적의 제도 조정을 통한 효율성-실효성 제고
- 지자체 복지행정의 혁신 유도
- 돌봄 유관 거버넌스 활성화

나의 생각

통합돌봄의 대상중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미미함. 결국 통합돌봄을 주관하는 부서가 속해 있는 복지정책과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돌봄과 관련한 서비스는 맞춤돌봄, 장기요양, 응급안심서비스 등 노인복지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임.

또한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다르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인식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어 아쉬움이 있음.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민간기관을 인식하여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도 존재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공공과, 민관의

 이슈와 눌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정지희	

명확한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장의 준비와 대응

돌봄통합지원은 구군이 중심이 되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춘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먼저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응급안심 등)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의료와 돌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의료와 돌봄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돌봄영역에서도 지역 내 민간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전담조직 구군 공무원의 본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들이 민간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하고 통합돌봄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슈와 농자	1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최윤정	

학습 내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하는 부산사회서비스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 참석 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토론 진행

-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고, 사회보장, 복지제도의 핵심축으로 “돌봄”영역이 부각되었음.
- 돌봄-요양서비스 이용자가 2022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13.1%가 장기요양, 맞돌, 요양병원 등 돌봄 체계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돌봄 필요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병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일상생활, 사회관계 등에 전문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방향이 지역기반 돌봄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핵심이슈가 빈곤, 질병, 실업이라는 전통적 복지에서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돌봄의 방향으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돌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부각이 되고 있음.
- 2025.1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화 대응방향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핵심정책방향은
 - ① 건강단계별 재가 돌봄 확충 : 재가예방관리, 일상 돌봄, 재가요양, 재택의료, 의료 접근성 확대, 생애말기 관리 6가지 영역에서 현행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예고함.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는 어디서나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체계 마련 및 통합지원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지역중심의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 ② 아울러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 ③ 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이다.
- 2026년 법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대상 돌봄 사업군의 정비, 서비스가 취약한 영역의 서비스 개발과 확충 선행, 의료(기관)보건-예방 사업과의 강한 결합 개선,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복지행정체계 개편,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동기 부여, 좋은 돌봄을 돌봄 인력의 역량과 안정적 고용여건 마련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법의 적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나의 생각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방안 포럼에 참석한 후 나의 생각을 2가지 정도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

첫째, 수요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돌봄 통합지원법은 이상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발표자도 지적한바와 같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응 및 준비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미 혼잡한 돌봄 체계의 혼잡이 더욱 가속되어 질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

 이슈와 눌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최윤정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맞돌 등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통합지원법에서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판정체계 마련 등 법을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합지원창구를 만들지 등 현실적인 제시 및 시범사업이 너무 빈약한 듯하다.

둘째, 개인적으로는 돌봄의 영역은 이미 “사례관리”를 뛰어 넘는 영역이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돌봄은 시스템이 아니고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개인간 연계 (좋은 이웃들, 복지통장 등), 서비스간 연계, 기관간 연계를 주장한다. 이는 사례관리,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통합 돌봄의 해결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돌봄의 현장 영역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례관리를 통해 일부 돌봄은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돌봄의 대상은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돌봄이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시스템으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재가예방관리, 일상 돌봄, 재가요양, 재택의료, 의료 접근성 확대, 생애말기 관리 6가지 영역에서 재가돌봄의 확충은 의료의 영역이 들어와야 하고, 이미 의료계에서도 호스피스, 재택의료 등에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어떤식으로 실천해갈지 함께 논의가 이우러져야 하지만, 이 역시 복지 보건 영역이 분절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에 또다른 방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이미 맞돌의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돌봄공백해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이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가 개편될 것을 예고하였다.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노인복지관, 재가지원센터 등 돌봄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현재 부산에서 통합 돌봄이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해당 부서의 기관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은 배제된 논의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는 지자체는 논의의 내용에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전달 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야 하고, 돌봄의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임으로서 현장에 적합한 통합돌봄지원법을 성공시키지 않을까 한다.

우리 노인복지관 현장 (특히 맞돌의 수행하는 곳 또는 재가노인지원기관 등)이 오히려, 돌봄통합 지원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슈와 농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조수경	

학습 내용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 단계별 재가 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환경 조성, 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 통합 재가 기관 확충, 재택 의료 확대, 통합 판정 체계 도입,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모델 개발 등이 강조된다. 법의 목적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 지원은 보건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서비스 발전, 서비스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지역 중심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지자체 역할강화, 민간 영역 활성화 등이 있다. 과제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 마련, 민간의 서비스 준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제도 개선, 전달 체계 정지비, 질 좋은 서비스, 서비스 충분성 확보, 서비스 연속성 및 통합성 강화,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접근성 향상이다. 특히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 보건-복지 연계 강화, 효율적 전달체계구축, 지역사회 주체 간 협력 강화,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 수립과 인력확보,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

돌봄을 확장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생애주기 인 출산, 보육, 교육, 취업, 건강, 은퇴, 사망 등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가능하고,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돌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발제문에서 통합돌봄의 등장 배경으로 언급하신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안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현재 개별화된 주민의 욕구 해결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자원 및 제한된 공식적 자원에 의존한 통합돌봄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참여가 전제되고 돌봄의 시장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돌봄을 선택할 수 있어야 스스로 돌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돌봄의 영역은 전 생애주기에 대한 통합돌봄으로 돌봄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더불어 돌봄의 대상도 확대될 것이다.

다음 돌봄의 주체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주민,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 들어가는 공동의 책임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현 사회를 일상의 사막화, 극단적 이기주의, 끝없는 경쟁구조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참여의 필요와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공인력에 대한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통합돌봄 제공인력은 전담사회복지사, 1년 단위로 양성된 돌봄활동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가 상당수를 차

 이슈와 눌자	1 회 기	주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방향성		
		일시	2025. 4. 18.(금) 15:00~18:3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조수경	

지하고 있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이들의 처우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단기간근로자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 인식영향으로 돌봄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돌봄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제공인력이 또 다른 약자로 위치하게 하고 있다. 제공인력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의 참여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는 다변화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어 돌봄 욕구에의 대응은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라 할 것이다. 통합돌봄이 요구되는 요인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권리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적극적 대응책과 예방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돌봄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예산, 인력의 확보로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THEME #2

AI
&
스
마
트
복
지

 <p>이슈와 농자 2회기</p> <p>활동 을 소 개 합 니 다</p>	활동 주제	AI와 노인복지, AI 돌봄 등 디지털 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7: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h3>1. 논문 검토</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홍 <p>Neves et al,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p> <p>요양시설에서 인공지능(AI)이 개발·활용되는 과정 속에서 노인,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연령차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한 국외 질적 연구 논문이다. 논문은 AI 기술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기술적 약속 담론'과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노화 불안'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사용한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노인을 기술에 취약한 존재로 고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기술 설계와 운영에서 연령차별(사회기술적 연령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노인이 AI 훈련 데이터에서 배제되고, 기술이 주로 감시나 돌봄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 등을 통해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으며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경 <p>한리원, 2024,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개발연구" 임윤환, 2025, "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수용행동 연구" 김두리 외, 2024,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내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동향 분석" 임정원 외, 2023,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탐색 연구: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를 중심으로"</p> <p>노인복지 현장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내 논문 4편을 검토하였다.</p>		



이슈와 농자 2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첫째,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 개발 연구에서 예산, 인력 부족, 디지털 격차가 장애 요인이었으며, 사용자 경험과 기술 인프라가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다.

둘째, ICT 기반 노인 돌봄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수용 행동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이 수용에 중요하며 교육 및 기술 지원 강화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내 노인 AI 연구 동향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 AI 스피커, 로봇이 핵심 주제였고,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AI 기반 노인 돌봄 효과성 연구에서 효과와 함께 기술 불신, 데이터 해석 등의 한계가 있으며 개선을 위한 상호작용 기능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현장의 준비,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활용 시 인권적, 윤리적 측면 고려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 박시우

이현주, 2025, “노인의 디지털 여가 척도개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의 디지털 여가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며, 디지털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논문이다.

디지털 여가는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탐색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중요해졌다. 연구를 통해 디지털 여가가 노인의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확인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행동적, 경험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나이가 낮고, 도시에 거주하며, 학력이 높고,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일수록 디지털 여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여가에 대한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 디지털 여가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 정지희

임정원 외, 2023,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탐색연구: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를 중심으로"

AI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 방안을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탐색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 AI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생활 습관 개선과 비동거 가족과의 소통 증가에 효과가 있었고, 돌봄 제공자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안전 모니터링 도구로 유용하였다. 하지만 노인 개인은 낯선 기술에 대한 불신과 다양한 생활 패턴 포착의 어려움을 겪었고, 제공자는 데이터 해석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기능 강화,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는 조정,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설명,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 제공자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슈와 농자 2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 윤현주

한리원, 2024,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개발연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성숙도 지표 개발 논문이다.

연구 목적은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델파이 기법과 현장 검증을 통해 사용자 경험, 전략 및 리더십, 기술 인프라, 조직구조 프로세스, 조직문화 및 역량의 5개 핵심 영역과 2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가 개발되었다.

연구 결과, 사용자 경험과 전략적 리더십이 디지털 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와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최윤정

김해자, 2025, "디지털 노인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 노인재가 돌봄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돌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탐색하고,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며,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연구는 문헌 검토, 2차 자료 분석, 사례 연구, 면접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디지털 돌봄 기술은 노인의 일상생활 독립성 향상, 건강 관리, 정서적 안정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돌봄 기술은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사용에는 기술적 제약, 환경적 요인, 접근성 문제, 사용자의 낮은 기술 숙련도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인 경험도 존재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나 안전 및 신뢰 문제 같은 윤리적 딜레마도 발생할 수 있다.

논문은 디지털 노인 돌봄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정서적 지원과 돌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기술 활용 능력에 맞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돌봄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디지털 격차, 기술 문제, 종사자 지원 부족 등은 해결과제이다.

2. 주제 토론

AI와 노인복지, 디지털 수용이라는 주제로 각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슈와 농자 2회기

활동 내용

활동을
소개합니
다

시우

논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우리 실천 현장이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첫 출발점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기기와 장비를 갖추고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주

네, 공감합니다. 제가 학습한 노인복지기관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 연구에서도 현장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기관장의 명확한 디지털 전략 수립 및 리더십 강화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더불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동기 부여도 필수적입니다.

수홍

저는 현장의 준비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기술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을 디지털 기기 체험 교육이나 기술 설계 과정에 실제로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술을 도입할 때 '노화 불안' 같은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판단은 아님지도 점검해야고요.

지희

현장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노인분들이 낯선 기술에 대한 불신을 가지거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기술이 포착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노인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설정보다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도 기기 사용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해요. 또한, AI가 정서적 지지나 소통 부분은 아직 한계가 명확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윤정

제가 본 자료에서도 현장이 아직 디지털 전환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디지털 수용에 대한 이용자와 직원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AI 돌봄 로봇 시범사업 사례를 보니, 로봇의 잦은 고장이나 긴 유지보수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이나 높은 비용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현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슈와 농자 2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수경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단지 '돌봄 도구'를 넘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와 효율성 증대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 인프라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활용 과정에서 인권 기반 실천과 윤리적 측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성별, 연령,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기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중 기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성숙도 지표와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우수 사례, 실천 가이드 등을 담은 매뉴얼을 함께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지표도 정기적인 피드백과 업데이트 관리 체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홍

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분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자, 초기 치매 환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분 등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접근을 병행하며, 직원들 스스로 '노인은 기술을 못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인식 변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희

마지막으로, AI 돌봄을 통해 수집되는 노인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와 의료진 등 다양한 역할 간의 경계 설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조수경: 사례 연구와 경험 공유를 통해 ICT 기반 돌봄 서비스가 정말 효과적인지, 단순히 편의성이나 효율성만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양방향에서 점검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현장의 변화 의지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농자 2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이슈와 놀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 제목: 노인의 디지털 여가 척도개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저자: 이현주(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 학술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출판연도: 2025년

학습 내용

노인복지관의 주 사업 중 하나인 노인 여가에 있어서 디지털과 관계된 여가의 개념과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로의 변화에 대한 논문을 검토해,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여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디지털 여가의 개념을 탐색한 후 노인의 디지털 여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의 디지털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여가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여가 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성,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지털 여가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측정 도구 개발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디지털 여가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의 디지털 여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영향요인을 발굴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여가 참여를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문적·실천적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디지털 여가의 개념 탐색

- 디지털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없기는 하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디지털 여가의 주요 용어와 정의는 다양하기는 하나 대부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가 활동이라는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 디지털 여가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오락 및 취미형, 사회적 상호작용형, 정보탐색형, 오프라인 여가 보조형, 상업적 여가형이 있다.

- 디지털 여가는 코로나 19 범유행을 계기로 전통적 여가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슈와 놀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 노인의 디지털 여가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완화하며,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녀 및 손자녀와 실시간 소통하거나, 사진과 경험을 공유하며 세대 간 공감을 증진하고, 기술 활용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노인의 디지털 여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 기존 해외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인 여가 태도 척도와 디지털 여가 인식 척도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정·번안하였다.
 - 최종적으로 개발된 노인 디지털 여가 척도는 행동적 요인, 경험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된 3개의 요인과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은 디지털 여가 참여와 관련된 행동적, 경험적, 사회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 개발된 척도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나이가 낮은 집단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노인들이 디지털 여가에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의 디지털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분석대상을 전체집단, 디지털 여가 참여집단, 디지털 여가 비참여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 디지털 여가 참여집단은 학력이 높고, 나이가 낮으며, 남성 비율이 높고,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디지털 여가 비참여집단은 독거 비율이 높았다.
 - 기술적 특성에서는 디지털 여가 참여집단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자기효능감이 높고, 기술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에서는 디지털 여가 비참여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또한, 디지털 여가 비참여집단은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체집단에서는 거주 지역, 우울,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또한 디지털 여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에 거주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여가에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 이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여가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여가는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정보 격차 해소 및 기술 활용 능력 강화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 연구에서의 척도는 디지털 여가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여가에 대한 이론적 틀을 공고히 하고, 노인의 디지털 여가를 체계적

 이슈와 놀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이는 노인의 디지털 여가 참여를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의 생각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그 변화를 피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장비 및 기술의 활용, 기술의 발전에 뒤쳐져 있는 취약계층, 스마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 이를 위한 현장의 준비상황 등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디지털 여가를 다루고 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비단 여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 실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삶의 질에 격차를 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별, 연령대, 계층, 건강 상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가 동등하게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현재 상황에서 화두인 디지털,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디지털,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를 위한 첫 출발점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기와 장비들을 갖추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한 인적, 물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만의 일인가?

-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장비와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논문의 저자와 같이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 능력자들을 발굴

 이슈와 농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하고 도움을 받고, 연계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기본에 충실하자.

- 우리가 종사하는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에 충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이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 간에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워낙에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 소통과 공감, 자기결정의 존중, 관계 형성, 대상이 아닌 주체자의 삶, 고정관념과 인식의 변화, 지금보다 나은 삶 등 현재 실천하고 있는 방식과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 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슈와 놀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윤현주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 제목: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 개발 연구
- 저자: 한리원
- 학술지: 숭실대학교 대학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 출판연도: 2024년

학습 내용

이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성숙도 지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연구목적은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숙도 지표를 개발하여, 디지털 전환 진단 도구 활용 절차를 체계화하고, 진단 도구의 분석방법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배경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게 됨.

연구설계는 델파이 기법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성숙도 지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음(15명의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5개 영역과 2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척도 초안을 완성함). 두 번째 단계인 평가 지표 현장 검증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기관, 민간 노인복지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8부를 분석에 활용하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함.

핵심지표 영역은 5개 영역으로 요약하자면,

- 첫째, 사용자 경험(노인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
- 둘째, 전략 및 리더십(기관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과 리더십 역량).
- 셋째, 기술 인프라(디지털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과 시스템).
- 넷째, 조직구조 프로세스(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 및 조직 구성과 업무 역할).
- 다섯째, 조직문화 및 역량(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와 직원의 디지털 역량).

 이슈와 놀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윤현주

연구 결과, 사용자 경험과 전략적 리더십이 디지털 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이 연구는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지표의 실증적 검증과 다양한 기관에의 적용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나의 생각

이 논문을 바탕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과 지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함.

1. 지표가 실제 노인복지기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는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다양한 규모와 여건의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함.

2. 지표는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입장과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노인의 실제 디지털 접근성과 태도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임.

3.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지표도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적절한 지표도 내일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유연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4. 지표의 활용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

기관이 디지털 전환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성숙도 점검과 개선 활동을 독려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지표 점검이 형식적인 흐름으로 가능성은 없는가?

외부 평가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실제 내실있는 디지털 전환보다는 보여주기식 활동에 머무를 수 있기에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 활용 교육이 필요함.

지표 보급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우수 사례, 실천 가이드 등을 함께 제공하여 현장 이해도를 높일 실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술 변화에 따라 지표도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정기적 피드백과 업데이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윤현주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디지털 전략 수립 및 리더십 강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조직의 변화이므로, 기관장은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직원들의 디지털 이해도와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 등 디지털 활용 동기 부여가 필요함.

3. 노인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개선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하여 글자 크기, 음성 안내,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함.

4. 기술 인프라 확충

와이파이, 태블릿, 스마트기기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체계를 함께 구축함.

5. 기관 간 협력 및 외부 자원 연계

기술 지원,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등 지자체, 대학,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 우수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점을 찾음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정수홍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저자: Neves 외
- 학술지: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 출판연도: 2023년

학습 내용

SCI 등재지로 국외 논문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검토해, 연구 영역에서 AI가 노인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AI)이 요양시설(Long-Term Care, LTC)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령차별(ageism)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AI 개발자(7명), 요양시설 종사자(7명), 그리고 노인 옹호자(4명)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수집된 내용을 서사적 주제 분석(thematic narrative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논문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첫째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다. 이는 AI 기술이 미래에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서사로, 기술의 가능성과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 “AI 스피커나 로봇이 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고 가족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서사는 AI의 정서적 효과를 과장하고,
- “AI가 문서작업을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기대는 실제 기술 도입의 부담과 교육 문제를 간과한다.
- “AI가 치매 환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윤리적 책임, 오판 가능성, 데이터 편향 등 중요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낙관은 기술만능주의(techno-solutionism)를 조장하고, 돌봄 인력 부족, 연령 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덮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책임 회피, 기술 결정론의 강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 소외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슈와 농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수홍

둘째 개념은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다. 이는 개인의 노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담, 위기, 비효율로 인식하는 집단적 불안을 포함한다. 논문은 이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들은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AI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구 증가를 사회적 위기(crisis)로 인식하고,
-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드러내며 노인을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 치매에 대해 “AI가 말을 걸어주면 좋을 것”이라는 서사는 치매를 ‘노화의 실패’로 바라보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노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책과 기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담론이 된다. 노인은 능동적 사용자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만 상상되며, “AI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은 기술 도입을 정당화하면서 노화 자체를 비용으로 환원시킨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노인을 기술에 취약한 존재로 고정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의 다양성과 능동성을 간과하게 만들며, 기술 설계와 운영에서 연령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디지털 연령차별(digital ageism)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기술적 설계가 얹힌 “사회기술적 연령차별(sociotechnical ageism)”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는 “노인들은 기술을 무서워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기술을 설계하고,
- AI 훈련 데이터에는 노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AI가 노인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AI는 주로 감시, 돌봄, 알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노인이 기술의 사용자나 설계 참여자가 되는 구조는 거의 없다.
- 요양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기술 체험의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인을 수동적이고 비기술적인 존재로 고정화하며, AI 기술이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별을 낳는다.

나의 생각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 사회복지시설은 대면서비스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이슈와 농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수홍

대한 고민에 직면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비대면’이라는 방식과 ‘사람’이라는 본질 사이에서 질문을 품게 되었다.

- 코로나19가 끝나면 비대면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 대면 서비스보다 더 효과적인 ‘진짜’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존재할 수 있을까?
- 왜 항상 취약계층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서 가장 뒤처지는가?
-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복지 기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나의 잠정적 결론은 “기술은 사람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키오스크 활용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맥락 안에서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기본이 되는 사회.

최근 AI 기술, 특히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와 AGI(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러한 질문들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ChatGPT의 기술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복지 기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과 맞닿아 있다. 나는 이러한 기술적 전환이 스마트 복지의 실질적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내 사고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 논문은 기술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한다. 동시에,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이 노인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배제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 준다.

기술은 반드시 사회적 맥락과 함께 작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령, 계층,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이 기대와 구원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별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AI가 점점 더 일상화되고, 더 많은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ChatGPT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이라는 문화적 실험을 통해 기술 확산의 장벽(Chasm)을 넘은 것처럼, 복지 현장도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다.

- 과연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영수증에 풀을 붙이는 20세기형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클라이언트와 세상을 연결하는 ‘진짜’ 스마트 복지 기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들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다. 기술은 복지의 도구가 될 수도, 새로운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하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수홍

'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그곳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이 연구 결과를 노인복지관 등 실천 현장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요구된다.

1. 노인을 '기술 사용자'로 인식하는 전환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기술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 노인을 포지셔닝(positioning)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 체험 교육, 사용자 피드백 기반 설계에 노인을 실제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기술 도입 시 '노화 불안'이 반영된 판단인지 점검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노인 인구 증가 = 부담'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기술 도입의 배경 서사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역량 반영

복지관 이용 노인은 그 범주가 매우 폭넓고 다양한 만큼 고령자, 초기 치매 환자, 장애 동반자, 디지털 기기 익숙한 70대 등 다양한 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4. 기술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접근과 병행

AI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관계 기반의 돌봄·소통이 본질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5. 직원 및 가족의 인식 변화도 병행

"노인은 기술 못 써"라는 주변인의 고정관념이 실제 기회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이나 인식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정지희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 제목: AI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탐색 연구: 돌봄서비스 제공자 FGI를 중심으로
- 저자: 임정원(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종화(강남대 교양교수부 조교수)
길혜민(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부교수)
- 학술지: JDGS(디지털 콘텐츠학회 논문지)
- 출판연도: 2023년

학습 내용

1. 연구목적

-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제한점 및 개선점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초점 집단 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

3. 연구대상

- 서울 및 경기 지역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총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6명의 돌봄서비스 제공자(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학생, 생활지원사)

4. 연구질문

질문주제	질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노인을 위한 AI기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2. AI돌봄 서비스의 효과
서비스 내용 및 정보평가	1. AI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었는지 2. 데이터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 3. 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게 사용된 정보 4.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 정보
참가자의 반응 및 변화	1. 서비스 제공 후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 2. 참가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있었나?
서비스의 향후 방향	앞으로 AI돌봄과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슈와 놀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지희

5. 주요결과

카테고리	관점	주요결과
AI기반 노인케어관리 서비스의 효과	노인개인	1. 향상된 생활습관 2.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증가
	돌봄제공자	1.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 2. 의료서비스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도구
AI기반 노인케어관리 서비스의 한계	노인개인	1. 낯선 기술에 대한 불신 2.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
	돌봄제공자	1. 데이터 해석의 장애물 2. 필요한 데이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향
더나은 AI기반 노인케어 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	노인개인	1. 노인과의 상호작용 기능 2.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패턴에 맞춰 조정
	돌봄제공자	1.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설명 2. 초기부터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용자를 우선시 3. 구현 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종합 교육

6. 논의 및 제언

1)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돌봄 대상 노인과 돌봄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각각 확인하였고, 돌봄 대상 노인의 측면에서 노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동거 가족의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음.

→ 독거세대의 경우 이웃, 친구 자원봉사자 등 가족 이회의지지 체계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2)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모니터링 도구로 확인됨.

→ 레이더 센서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환경 및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인의 경우,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지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으로 보임

3) 기존서비스와 다른 유용성은 있지만 몇가지 한계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점 제시

→ 기기에 대한 불신, 레이더 센서가 보여주는 기능의 한계, 대상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 상호작용 불가능(이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으로 통해 충족하고자 함)

 이슈와 놀자	2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지희

- 4)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임. (정해진 규칙이 아닌 임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 5)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문해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침
→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의미, 기기의 원리와 기술적 한계, 수집데이터 해석, 시나리오 중심의 이상 상황별 대처방안,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적 건강 및 생활상담 실습 등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나의 생각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비대면과 AI를 활용한 노인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이 고민을 시작하였고, 우리 현장은 유튜브, 효돌이 효순이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고민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 스마트헬스케어와 같이 IOT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또한 확대되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노인돌봄, 케어 등에 대한 현장의 고민들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이런 대응속에서도 과연 AI가 휴먼서비스인 노인돌봄을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첫 번째로 논문에서 고민한바와 같이 AI를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온전히 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이 가능할 것인가? 위 논문에서도 상호작용은 결국 돌봄활동가의 역할이 되었다.

세 번째로 AI돌봄은 결국 독거어르신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지는 않을까?

네 번째로 수집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다섯 번째로 기계의 유지보수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보분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인가? 대상자의 건강영역에 대한 의료진의 역할인가?)

여섯 번째로 기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같이 단순 기능만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현장의 준비와 대응

디지털 시대에 AI돌봄에 대한 현장의 준비는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1. 쉽게 활용 가능한 기기가 필요함.

 이슈와 농자	2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정지희

먼저 AI와 디지털 돌봄의 수혜자가 노인일 경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행인력도 기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기계를 정확히 모를 경우 효과성을 떨어질 수 있고, 스마트폰과 같이 단순 기능 위주의 사용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거나 복잡한 설정보다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담당자도 사용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2.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식습관, 생활환경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누적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에서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3. 정서지지,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대상자의 건강상태, 간단한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으나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지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챗 GPT 등을 통해 개인적인 감정까지 공감하며 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챗GPT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국 돌봄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계 활용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조수경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1. ■ 제목: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개발연구
 - 저자: 한리원
 - 박사학위논문 : 숭실대학교
 - 출판연도: 2024.12.
2. ■ 제목: 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수용행동 연구
 - 저자: 임윤환
 - 박사학위논문 : 위덕대학교
 - 출판연도: 2025. 2.
3. ■ 제목: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내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동향 분석
 - 저자: 김두리, 강경희, 구진희
 - 발행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출판연도: 2024. 2.
4. ■ 제목: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탐색연구
 - 저자: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를 중심으로
 - 저자: 임정원, 이종화, 길해민
 - 발행처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출판연도: 2023.

학습 내용

1. 노인복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지표개발연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원격 의료 등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복지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중요 장애요인은 예산 부족(42%), 전문 인력부족 (38%), 디지털 격차(35%)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전환 성숙도를 위한 평가지표 체계는 사용자 경험, 전략 리더십, 기술 인프라, 조직구조 프로세스, 역량 문화의 5개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항목은 사용자 경험 : 고객경험과 가치의 업무연계, 고객 채널 데이터 통합관리, 고객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고객 만족도, 개인화, 전략 리더십 : 디지털 전략과 조직인식, 디지털 전략과 투자의 연계성, 디지털 전환 사업기획과 투자, 혁신적 리더십, 디지털 투명성, 기술 인프라 : 디지털 전환 연구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조수경	

개잘 목표, 업무 시스템 아키텍처 관리, 클라우드기반 업무시스템의 개발과 제공,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성, 조직구조 프로세스 : 디지털 기술기반 업무 자동화, 시공간적 제약없이 디지털 업무환경 제공, 전담조직,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통합, 역량 문화 : 디지털 전환 업무의 역할과 책임체계 명확화, 디지털 전환 경험에 기반한 학습문화, 구성원들의 디지털 전환 기술역량과 인식수준, 디지털 참여동기, 디지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사용자 경험과 기술 인프라 영역의 노인복지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핵심요인이었으며, 세부 측정 항목은 사용자 경험의 고객 경험(고객 관련 정보를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과 가치의 업무 연계가 최우선 순위 핵심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기술 인프라 영역의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목표와 사용자 경험의 고객 데이터 채널 통합관리가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기반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수용행동 연구

디지털 전환 개념의 구성요소는 디지털 기능, 디지털 기술, 혁신 영역, 가치창출이다. 기능은 디지털 환경에서 복지기관이 성장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종사자,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보유하는 기술능력,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영역은 디지털을 도입하여 기존의 돌봄서비스방식이나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영역, 가치창출은 복지기관의 조직과 이용자가 모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를 의미한다. 기술주도적접근과 실천주도적 접근은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디지털 활용이 사회복지실천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의 입장과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면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수용의 측정항목은 독립변수로 성과기대(디지털 기술에 대한 실무적 효능감), 노력기대(디지털 기술 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신념), 사회적 영향(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인식), 촉진조건(디지털 기술 활용지원 인프라에 대한 인식), 매개변수는 수용의도(활용의지), 종속변수는 수용행동(디지털 기술 활용 실천참여)이다. 돌봄종사자의 디지털전환에 있어 사회적 영향이 수용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이 종사자들의 의도나 태도를 먼저 형성하고 행동을 유도한다.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의도와 수용 태도 유도가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 교육프로그램, 기술지원강화가 필요하다.

3.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내 노인 관련 인공지능 연구동향 분석

핵심주제에는 빈도분석 결과 돌봄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로봇 순이었으며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돌봄서비스, 디지털, 인공지능스피커, 로봇 순이었다. 디지털 적응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디지털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의사소통 기술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로 서비스 제공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디지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조수경	

털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 분석할 수 있었다.

4. AI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탐색연구 :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효과는 노인 측면에서 생활습관 개선, 비동거 가족의 관심증가가 있었으며, 제공자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안전 모니터링 도구, 돌봄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는 도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의 한계는 노인 측면에서 기기불신, 다양한 생활 패턴 포착의 어려움이 있으며, 제공자 측면은 데이터 해석의 벽,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있었다. 개선을 위해 대상 노인과의 상호작용 기능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디지털 문해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의 생각

디지털 전환은 이미 사회적 각 영역에서 적용되어 업무 프로세스 변화,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정보통합 관리 등으로 적극 활용되어오고 있었으나, 사회복지 현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COVID-19를 경험하며 사회복지 현장은 디지털 전환의 체계적 이해와 적용 검토에 앞서 사회 환경의 요구에 따라 당장의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발적 적용을 시도하게 되었다.

타 영역의 전환과정에서와 같이 기관 차원의 계획과 준비 및 검토, 기술적 지원과 기술적 요인에 관한 학습, 종사자의 역할과 적용시도, 효과적 활용의 의미 이해 등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 돌봄을 위해 다양한 ICT기반 돌봄 보조기들이 다양하게 활용 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받아들이려는 관심이 확대되었다. 그 직접적 사례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하였으며 각 지자체별 시범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돌봄 영역에서의 활용 외에도 업무수행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구들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도구와 기능 활용은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접근성에 밀려져 있다.

기관 차원의 전사적 적용 검토와 준비, 종사자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소통은 부재하며, AI와 노인복지를 검토한다고 할 경우 돌봄 영역의 범위에 국한된 이해와 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 현장은 돌봄영역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ICT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는 정말 효과적인가? ICT기반 노인돌봄을 제공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가? ICT기반 노인돌봄은 무작정 확장되는 것이 타당한가? 등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디지털 전환의 개념 이해와 적용을 고민하여 하지 않을까 한다.

 이슈와 눌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자	조수경

현장의 준비와 대응

이 연구 결과를 노인복지관 등 실천 현장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요구된다.

1. 돌봄을 위한 도구의 범위에서 확장된 디지털 전환의 이해와 전환을 위한 기관의 준비 및 체계에 대한 논의기회 마련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고객 대응, 프로세스 마련과 그것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행이 가능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여전히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정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ICT 연계활용 외 확대된 기술인프라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업무가 전환되어야 한다.

2. ICT기반 업무수행을 위한 사례연구와 경험 공유 등으로 내외적 동기 강화와 효과성 확대

ICT기반 돌봄서비스가 단지 서비스 유용성과 편의성만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지, 서비스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양방향에서 검토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활용의 효과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성공적 활용 성과를 토대로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를 도모할 수 있다.

3. ICT기반 업무수행과 돌봄서비스 제공시 인권기반 실천과 윤리적 실천에 대한 점검

사회복지 실천은 인권 기반 실천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인권적 측면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슈와 농자	2 회 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최윤정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학습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디지털 노인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 노인재가돌봄종사를 중심으로- ■ 저자: 중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해자 ■ 학술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출판연도: 2025년 								
학습 내용								
<p>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 돌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임.</p> <p>연구방식은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사례관리 면접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노인의 미 층족 돌봄 욕구를 해소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p>								
<p>(연구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작스러운 변화 당황 – 대면 돌봄의 대안으로 중요한 가능성, 그러나 돌봄 제공자 및 어르신 모두 기술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2) 디지털 돌봄의 긍정적 경험 –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누리고, 건강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고, 돌봄 종사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증가함. 결국 디지털 돌봄 기술이 고령화 사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임. 3) 디지털 돌봄의 부정적 경험 – 기기회수, 기술오작동, 환경적 제약,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 등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검증을 위협하고 있음. 4) 윤리적 딜레마 – 사생활 보호와 신뢰 문제라는 윤리적 문제 발생 5) 디지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미래에 대한 기대 – 노인의 건강 정서적 지원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돌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기술 활용 환경에 맞춘 세심한 설계와 실행이 필수적임. <p>그러나 디지털 돌봄 서비스가 재가노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돌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디지털 격차, 윤리적 문제, 종사자 지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p>								

 이슈와 농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최윤정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나의 생각

돌봄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요양, 맞춤돌봄,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지만 막상 우리 부모의 경우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를 고민했을 때 아무것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가족 중심의 돌봄이라서 나의 가족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를 모시면 어떨지”를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이라면... 지나가는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처럼 결국 가족과 떨어지는 두려움, 가족 역시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불안감 경제적 부담은 재가 돌봄을 선택한다. 그러나 돌봄의 영역은 “지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자체가 돌봄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경험치를 쌓기 시작했다. 돌봄 로봇을 접하게 되고, 돌봄 로봇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 부분의 돌봄 가치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 영역의 발전은 디지털 기술의 복합체의 로봇, 인공지능 등 앞으로의 발전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복지 영역에 활용되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외에도 이미 너무 방대하게 확산되고 있다.

복지욕구	구체적인 기능	디지털 기술
안전	독거노인응급상황 인식을 위한 모니터링	ICT
여가	노인을 위한 게임 콘텐츠	디지털 컨텐츠
건강돌봄	스마트 TV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브로드캐스팅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는 돌봄의 주요 사례로는 ① 움직임 감지를 통한 낙상위험 예측 ② 약물복용관리 ③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택요양 지원 ④ 외로움 완화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 효돌이, 다솜이, 마이봄 등 ⑤ 기술기반 헬스케어 ⑥ 인지 기능강화 등이 알려져 있다.

분명 디지털 돌봄서비스는 차세대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 정서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 표본이 제한적이고, 디지털 격차의 현실 반영, 기술에 거부감을 가진 노인의 경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발전을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를 잘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야

 이슈와 농자	2회기	주제	AI와 노인복지, AI돌봄 등 디지털수용		
		일시	2025. 5. 23.(금) 15:00~18:00	학습자	최윤정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하며, 노인복지관 역시 디지털 수용에 대한 이용자 및 직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으로 AI돌봄로봇의 노인복지관 수요확산사업을 수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지 훈련을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참여자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되면서 인지 훈련을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참여자들의 디지털 능력이 향상되는 등 효과성이 검증이 되었고, 참여자 12명중 9명이 삶의 질과 안녕감 척도 감사를 통해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후반기에 참여자의 결석이 많아지고, 돌봄 로봇의 부팅시간이 오래걸리고, 업데이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돌봄로봇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구축을 해둘 수 없어서 업체에서 회수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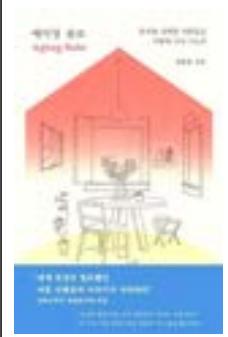
결국 아직 현장에서는 돌봄 로봇을 비롯하여 이전에 VT 케어에서도 그렇지만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의 영세함과 지원 체계의 불명확함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수요기관의 돌봄의 디지털 뿐 아니라 재가 돌봄으로 구축도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가 돌봄의 디지털화는 앞으로 매우 커다란 시장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용자에게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돌봄은 돌봄 영역의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쌓고, 돌봄 가족, 이용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경험제공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ME #3

1
인
가
구

이슈와 놀자 3회기 활동 을 소 개 합 니 다	활동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7:00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1. 학습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도서명: 에이징 솔로 작가: 김희경 (기자/PD/문화인류학과 객원교수, 前 여성가족부 차관) 주제: 가족이나 배우자 없이 혼자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그들이 마주하는 사회적·정서적 과제를 조명하는 에세이</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20px;"> 수경 </div> <div> <p>김희경 작가님의 『에이징 솔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 특히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의 삶에 집중한 책이에요.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이미 '정상가족' 가구보다 많아졌고, 특히 중년(40~64세)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는 혼자 사는 삶이 일시적인 전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20px;"> 현주 </div> <div> <p>맞아요. 이 책은 결혼이나 자녀 없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 즉 '에이징 솔로'라는 새로운 인구 집단의 등장에 주목하고, 독거노인 증가와 1인 가구 고령자의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죠. 작가는 비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노년을 맞이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두려움, 생존 전략을 담아내고 있어요.</p> </div> </div>		



이슈와 농자

3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시우

이 책은 에이징 솔로들이 겪는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데,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보다 '연결이 끊어진 삶'이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또한,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 특히 비정규직이나 돌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위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지희

저는 '에이징 솔로'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를 의미하고, 주로 주위의 결혼 압력에서 자유로워졌으며 혼자인 삶을 오랫동안 꾸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외로움, 친밀감, 돌봄, 생계, 주거 등 나이 들어가는 '혼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윤정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결혼 중심적이고 가족이 있음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인지 자각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비혼이라고 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풍성하게 생활하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수홍

이 책은 특히 비혼 중년 여성의 삶을 사회복지의 주요 철학인 돌봄 윤리(care ethics)와 연결하여 정치적, 제도적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소수자의 목소리가 묻히기 쉬운 우리 사회에서 1인 여성 가구의 삶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죠. 다만, 역량과 자원이 있는 중년 여성의 경험에 집중하여 돌봄 노동자나 경제적 취약계층, 남성 1인 가구의 삶은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수경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해요. 책이 비혼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비혼 경험은 가부장제와 생애 과제의 차이로 인해 여성의 경험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해 인터뷰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죠. 또한, 책은 고독사를 '재택사'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혼자 사는 삶이 주류가 될 미래에 사회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슈와 농자 3회기

활동 내용

소개합니
다

2. 나의 생각(개인적인 통찰 및 문제의식)

현주

『에이징 솔로』를 읽고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누가 돌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전통적인 가족 돌봄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대안적인 돌봄 모델을 고민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돌봄 관계망을 구축하는 기획자이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저는 이 책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 고립의 주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봅요.

수홍

저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중받아야 하며, 결혼 유무로 인간다운 삶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 책이 비혈연 후견인 제도, 동반자 권리 보장, 공동주거 법제화 등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지희

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책에 나오는 1인 가구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직업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어요.

윤정

저 역시 혼자의 삶이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꼈고, 느슨한 소통의 필요성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 사회의 가족 중심적인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와 농자 3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수경

맞아요. 저는 에이징 솔로의 삶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보장 지원 단위가 여전히 세대 단위(가족 단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 단위의 보장 제도로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책을 통해 깨달았어요.

3. 현장의 준비와 대응(실제적인 제안 및 방향성)

현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1인 가구 기준의 복지 수급 체계를 설계하고, 개인 단위의 돌봄 보장 및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우

저는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는 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관계 맺음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아플 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돌봄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맺은 친밀한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서로 돌볼 권리가 보장받는 가족의 형태를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수홍

노인복지관은 에이징 솔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이 돌봄을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나의 돌봄 계획서’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속형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특히 책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던 1인 남성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지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케어안심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나 1인 가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돌봄의 선순환과 공유를 위한 플랫

 <p>이슈와 농자 3회기</p>	<p>폼을 활성화하고, 우에노 지즈코의 '팀K'처럼 가족을 대신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p> <p>윤정</p> <p>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자서만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책의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및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에이징 솔로가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더 클 수 있기에, 가족 돌봄 부담을 에이징 솔로에게만 최우선으로 지우지 않는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p> <p>수경</p> <p>구체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대상을 친구나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병원 동행 시 법적 가족 요구 관행을 개선하며, 생활 동반자법 또는 건강 돌봄 대리인의 필요성 등 법적이고 사회적인 보호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의지에 기대기보다 시스템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p>
<p>활동 내용</p> <p>활동을</p> <p>소개합니 다</p>	



이슈와 놀자 3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박시우 관장님

 이슈와 놀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윤현주	

학습 내용

『에이징 솔로』는 결혼이나 자녀 없이 혼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 책으로 독거노인 증가와 1인 가구 고령자의 현실을 심도있게 다룬다. 작가는 비혼·이혼·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노년을 맞이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두려움, 생존 전략을 담아내도 있다

1. 에이징 솔로의 등장

-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 없이 살아온 중장년들이 점차 노년기로 접어들며, '에이징 솔로'라는 새로운 인구 집단이 나타남
- 전통적 가족 시스템의 해체로 돌봄, 감정적 지원,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이들이 많아짐

2. 고립과 외로움

-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지면서 정서적 고립이 심화됨
-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보다 '연결이 끊어진 삶'이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러움

3. 경제적 불안

-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끊기면서 빈곤의 위험에 직면함
-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돌봄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위기가 두드러짐

4. 돌봄의 공백

- 가족 중심 돌봄의 붕괴로 더 이상 가족이 돌봄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지 않음
- 1인 가구는 건강문제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단이 부족함

나의 생각

에이징 솔로를 읽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고민 3가지

1.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 찾기
 - 전통적 가족돌봄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대안적 돌봄 모델을 고민해야 함
 -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로서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돌봄 관계망을 구축하는 기획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
2. 관계와 정서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
 - 돌봄이 단지 신체적,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 정서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할 수 방법 찾기
3. 복지제도의 틀을 다시 묻기
 - 지금의 복지제도는 가족단위, 정상가족 모델을 전제로 작동함

 이슈와 눌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윤현주	

-사회복지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1인가구, 비전형 가족, 고립된 개인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고민해야 함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 복지로 전환 필요

-1인 가구 기준의 복지 수급 체계 설계, 개인 단위의 돌봄 보장 및 자격 요건 완화

->가족단위 수급 기준을 개인 중심 자격 체계 개편

2.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강화

-주민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돌봄인력 전문화 및 배치 확대

->지역 돌봄 거점(복지관, 주민센터, 카페 등)을 통한 상시 상담체계 마련

3.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

-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제도화, 중장년 대상 심리상담, 공동활동 프로그램 확대

->마을활동가, 관계증개사 등 새로운 복지 인력 도입,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결망 재구성

4. 주거복지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1인 가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공간 내에서 돌봄·건강·정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형 복지주택 도입

->주거취약 1인가구 대상 커뮤니티형 공공임대 시범사업, 주거지 기반 찾아가는 복지상담 연계

 이슈와 놀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정수홍	

학습 내용

『에이징 솔로』는 비흔 중년 여성의 삶을 정치적·제도적 의제로 제시한 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기 쉬운데, 이 책은 1인 여성 가구의 삶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비혈연 돌봄 관계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의 주요 철학인 돌봄 윤리(care ethics)와도 접점을 이룬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보인다. 우선, 이 책은 역량과 자원이 있는 중년 여성의 경험에 집중해 돌봄 노동자나 경제적 취약계층, 남성 1인 가구의 삶은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또, ‘혼자 살기’라는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노년에 발생하는 돌봄 위기를 문제 삼는 점은 자율성과 상호의존성 개념의 충돌을 유발한다. 사회복지에서의 돌봄은 단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관계적 자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철학적 논의가 책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비혈연 후견인 제도, 동반자 권리 보장, 공동주거 법제화 등 현실적인 정책 제안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차등 원칙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차원이 있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중받아야 하며, 결혼 유무로 인간다운 삶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롤스의 차등 원칙과 공화주의적 공동선의 개념에 공감해 이런 관점에서 글을 읽어나갔는데, 사례에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사회적 필요로 해석하는 서술하는 부분, 그리고 자율성과 돌봄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이질적인 관점을 함께 풀어내려 한 점이 아쉬웠다.

결국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문제의식을 던져주지만, 이를 공동선의 사회적 논의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철학적 토대와 서사적 설득력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에이징 솔로의 증가에 대비해 노인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돌봄 계획 지원

돌봄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하고 ‘나의 돌봄 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노인이 돌봄을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계 기반 돌봄 체계를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하는 실천.

 이슈와 눌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정수홍	

2. 소규모 커뮤니티 활성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지속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 특히 책에서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1인 남성 가구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

3. 성인지적 관점의 상담과 조직문화

결혼·출산 여부를 전제하지 않는 다양성 중심의 상담 태도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상담자 교육과 조직문화 점검을 병행해야 함.

4. 비혈연 돌봄 제도화 및 공간 지원

생활 동반자, 친구, 지인 등 비혈연 관계자들을 돌봄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과 인식 개선. 이를 위한 복지관 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5. 공론장 기능과 복지 정책 논의 활성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노인의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이를 공동선 가치로 실현하는 공론장 역할 수행. 선배시민 참여,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6.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 역할

1인 가구의 돌봄 체계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포괄적·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7. 디지털 전환 대응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노인 세대의 정보 소외와 고립 예방.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비대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 유지.

 이슈와 놀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학습자	정지희

학습 내용

- 에이징 솔로: 결혼에 대한 주위의 압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혼자인 삶을 오랫동안 꾸려온 사람들
- 40세~64세 에이징 솔로 19명을 만나 외로움과 친밀감, 돌봄, 가족과 우정, 생계와 주거, 노후 죽음 등 나이 들어가는 ‘혼삶’에 대한 얘기
-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돌봄의 품앗이 등 여성 1인 가구의 생각과 1인 가구가 살아가는 방법, 사회적 대처 등에 대한 여러사람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알 수 있었음.

나의 생각

- 1인가구로 살게된 과정? 본인의 선택, 환경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인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사는 형태가 달라짐.
- 이 책의 1인가구는 사회적 역할이 명확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1인가구의 형태가 훨씬 많음.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삶이기에 1인가구의 삶에 만족하고, 직업과 경제력 등을 갖추고 있기에 삶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생각함.
-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그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나의 사회적 역할(직업 등)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었을 때 1인가구로서의 독립된 생활과 지역사회 활동 등을 할 수 있음.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사회적 관계망: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있는 마을. 1인가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필요성. 지역화폐(동백전 등)를 활용한 자원맵 등 (ex. 공간비비), 관계망을 찾을 수 있는 꾸준한 정보제공(ex. 서울 서초구 친구모임방)
2. 돌봄의 선순환, 돌봄 공유하기: 케어링 브릿지, 밀 트레인과 같은 돌봄공유 플랫폼
 - 우에노 지즈코 ‘팀K’ :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싱글에게는 가족을 대신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함.
 - 서로의 돌봄이 마을의 돌봄으로
3. 지역사회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4. 노후에 건강한 삶 유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또는 일자리의 문제

 이슈와 농자	3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조수경	

학습 내용

김희경 작가의 저서 『에이징 솔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비혼 중년의 삶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주류가 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나이 들어가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의 변화와 대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은 '비혼'이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2명의 에이징 솔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비혼 남성 인터뷰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비혼 경험은 가부장제와 생애 과정의 차이로 인해 여성의 경험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이징 솔로'는 결혼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중년, 또는 친구 등 동거인이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비혼의 중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33.4%)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가구(29.3%)보다 많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족 형태 중 33.4%로 가장 높은 1순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년 (40~64세) 1인 가구는 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중년 5명 중 1명이 혼자 산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일시적인 전환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삶의 기본형태로 선택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속에 비혼 여성에 대한 시선은 비혼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던지는 '이기적이다'라는 시선으로 해석된다.

혼자 살면 외롭거나 아프면 어쩌냐는 현실적 두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계로서 이러한 두려움이 혼자사는 삶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외로움은 혼자 살 때보다 감정 교류가 막힌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

비혼의 형태는 원가족과의 독립 여부,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따라 다양하며, 부모 돌봄에 있어 약자가 될 수도, 원가족과 원만하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고독사' 대신 '재택사'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혼자 사는 삶이 주류가 될 미래에 사회, 주변, 기관, 정부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삶의 모델이 필요함을 고민하게 한다.

에이징 솔로들이 경제적 독립, 주거 문제, 친밀한 관계 맺기, 정서적 안정, 노년 준비 등의 생애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불안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주류라는 뿐 깊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비혼을 원가 부족하거나 문제 있다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와 인정을 위한 넓은 시선을 촉구하며, 가족 돌봄 휴가

 이슈와 놀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조수경	

대상을 친구나 형제자매로 확대, 병원 동행 시 법적 가족 요구 관행 개선, 청약 가점제에서 1인 가구 불이익 문제, 생활 동반자법 또는 건강 돌봄 대리인의 필요성 등 법적/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노년의 돌봄과 간병, 고립이 특정 개인이나 비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며, 선의지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는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에이징 솔로의 삶이 특별하거나 유별나게 보이지 않고,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로의 전환과 사람의 성숙하고 온전한 삶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나의 생각

홀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주거적, 정서적 과제를 다루며, 사회적 고립 문제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중년 1인 가구의 비중을 언급하며, 에이징 솔로의 삶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도서 중

- ▶ 혼자 살기가 더 수월해지고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맺는 방법이 발달할수록 경직된 결혼제도 대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게 될 것이다(p.60).
 - 물론 다양한 연결망이 가능하기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현 사회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와 계층변화의 기회 부재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도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고립의 주원인인 양 호도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되었을 테 이터로도 입증되지 않는다(p.90).
 - 우리 현장은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실천을 행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현재 1인가구는 우리 현장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때 책에서 지적 하듯이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고립의 주원인인 것으로 기획되고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관계맺기 위주의 실천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 공동체나 새로운 주거형식, 새로운 연대의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근대가족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것(p.135).

 이슈와 눌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조수경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p>→ 우리 사회보장 지원단위는 세대단위(가족단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변화를 진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할 경우 개인단위의 보장제도로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p>								
현장의 준비와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회복을 위한 관점은 우리가 함께 무엇이 되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보다 각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안전한 관계, 안전한 공간의 역할이 필요하고 서로의 특성과 삶의 지향을 봄주는 공동체이어야 할 것 2. 우리 모두는 취약하고 서로에게 기대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돌봄 영역의 확장과 돌볼권리과 돌봄은 선택할 권리의 확대 3.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돌봄이 가능한 사회 4.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맺은 친밀한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서로 돌볼 권리 는 보장받는 가족의 형태 →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인정과 제도화 								

 이슈와 놀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최윤정	

학습 내용

스스로 배우자나 자녀 없이 나이 드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40~64세 비혼 여성의 삶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단순한 혼자의 삶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결혼 중심 사회 구조인지, 아님 당연히 끈끈한 가족이 있음을 당연시 하는 사회인지 자각하게 되었다.

비혼이라고 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생활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함께 지내는 사람을 ‘외로움과 연대’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돌봄, 노후 준비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내용 (병원 입원 시 보호자 확인), 정상적 가족 이념을 넘은 개인 중심 복지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의 제도화” 등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제도가 앞으로 “싱글리즘”을 어떤 방향으로 흡수하고 통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나의 생각

사실 난 혼자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고,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처럼 느끼면 살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보아온 상황이라 “나이 들어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기도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남성이 월등히 많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삶의 환경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인터뷰하는 자연인들이, 그들 역시 느슨한 소통을 하고 있음을 가끔 보게된다. 그리고 인터뷰이들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솔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는데 이들의 고민을 이렇게 책을 담아 엮어 보니, 우리 사회의 가족 중심적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에이징 솔로를 통해 고민했던 몇 가지 사항은

- ① 느슨한 사회적 관계의 제공 : 복지관을 오는 대부분은 복지관을 통해 “관계맺음”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보러 온다고 한다. 복지관은 이들에게 느슨한 사회적 관계 제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고민해야 한다.
- ② 돌봄의 제공 : 아플 때 나를 누군가 돌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들의 돌봄의 영역에서 방지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돌봄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돌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결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 ③ 공동체의 형성 :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자서만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책에서 이야기

 이슈와 눌자	3 회 기	주제	1인 가구는 문제인가? 『에이징 솔로』를 읽고		
		일시	2025. 6. 24.(금) 15:00~18: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최윤정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기대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지원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

④ 부모 돌봄 : 중년이 된 에이징 솔로들도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혼자이니깐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어찌 보면 가족구성원들이 있는 형제들보다 더 큰 부분이다. 가족을 돌보다 에이징 솔로가 되는 가역적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에이징 솔로가 되어서도 가족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관은 이들의 가장 쉽게 이용 가능한 복지 공간이 될수 있다. 에이징 솔로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들을 위한 “느슨한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일 역시 노인복지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ME #4

노
인
여
가
&
트
렌
드

 <p>이슈와 농자 4회기</p> <p>활동을 소개합니 다</p>	활동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하는가?
	일시	2025. 7. 14.(월) 15:00~17:00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p>[특강]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평생교육)에 관한 노인복지관의 역할</p> <p>강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이병준 교수</p>		
활동 내용	<p><input type="checkbox"/> 노인여가교육 관련 당면 현안과 대안</p> <p>1. 새로운 학습자층의 유입 미흡 : 고학력, 다양한 취향, 일과 여가의 균형 희망</p> <p>2. 경쟁기관들의 등장</p>	
	하하캠퍼스	현재 콘텐츠의 품질은 낮은편 하지만 심리적 만족도는 높음 보다 적극적인 시니어그룹의 참여
	백화점 문화센터	쾌적한 공간, 대중적 강사진 소비·여가·교제의 장소적 결합
	구군 평생학습센터	집 근처(근거리), 무료 또는 저렴 여러 세대의 공존
	민간 노인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하는 끈끈한 관계 형성 다양한 정보 유통, 높은 접근성
	시니어클럽	일(job)과의 연계, 높은 소속감
3. 정체된 프로그램/학습자	<p>Q)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어떤 사람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milieu 분석)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 → 이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수준이 달라져야 함 	



이슈와 농자 4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4. 기관 정체성의 재정립 필요

(현황) 저렴한 프로그램, 새로운 시도가 제한적, 특정 그룹의 장기간 참여(점유)

(분석) 모든 걸 다 함으로 인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
정체성과 참여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

(대안1) 평생교육

- 개인적 차원: 행복, 일/삶 균형, 외로움-소속감, 은퇴 이후의 삶
 - ↳ 예) 우정에 관한 프로그램 필요
- 사회적 차원: 복잡성(에 대한 통찰), 지속가능성, 공존, 불확실성
 - ↳ 경제적 자립

(대안2) 노인복지관의 내용영역

- 인간교육, 교양교육의 장 //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가?
인간의 내러티브(확장)에 기반한 내용
 - ↳ · 나란 존재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재해석
 - 삶의 정향을 위한 방향적 지시
 -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
 - 예) AI의 내러티브(수렴)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풍요롭게 하는 강좌
 - 시민교육의 장
- ※ 공론장: 시민들이 언어적으로 구성해내는 사회적 공간

5. 노인복지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 공간과 분위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 확립
 - ↳ 새로운 시니어를 맞으려면 공간이 달라질 필요.
(미적, 정서적 취향 층족)
 - 사례) 도서관의 환경 변화
과거 독서실 분위기에서 호텔 로비 같은 연출로 쾌적한 분위기(정서적 접근) 조성 → 그 결과 방문객 층의 다양화
- ※ 공간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진입 자체를 안한다.
- 사회적 문제 대응, 새로운 프로그램의 런칭
 - ↳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 런칭
예) 고독과 소속감 관련,
 - ↳ 이웃 프로젝트
issue) 새로운 것은 '느슨한'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우리 네트워크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 진지한 여가
 - ↳ 전문성에 기반,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부캐로 일(job)의 세계와 연결(좋아하는 것 → 일자리)
⇒ 이런 세계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슈와 농자 4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진지한 여가’에 대한 담론

1. 강의에 대한 개인적 의견

시우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시대와 상황의 빠른 변화, 그리고 기술력 발전 속에서 노인복지관이 과연 노인세대의 변화하는 욕구와 학습 욕구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잘 고려해서 조화롭고 장기적인 노인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주

맞아요.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를 통해 변화를 주려고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제가 노인이 되어서도 가고 싶은 복지관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특히 고학력 노인세대와 다양한 취미를 가진 노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전 세대보다 일, 여가, 학습의 균형을 희망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수홍

저 역시 이번 특강이 노인 여가 교육의 당면 과제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노인 세대의 유입 부족, 경쟁 기관의 증가, 프로그램 및 학습자의 정체, 기관 정체성의 모호함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공감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성과나 유행을 쫓기보다는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기관의 모습을 상상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희

저도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년사회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특히 새로운 학습자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우리 기관의 신규 회원 가입층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경

저는 노년사회화 교육이 현재 취미 여가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하는 욕구, 즉 고학력, 다양한 취향, 주체적 학습 욕구는 기존의 집단 중심, 일방향 프로그램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와닿았죠. 노년사회화 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신규 이용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슈와 농자

4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윤정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그동안 여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산해왔는데, 최근에는 여가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욕구를 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밀리유(milieu)를 파악하여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 수준 등 모든 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2. 현장의 준비와 대응

시우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일이 그렇듯 철저한 상황 파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현재 우리 조직 상황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진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조직 특성상 인력 충원이나 재정 확충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주

저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 복지를 강화해서 풍요롭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다루는 사회복지 현장은 사람의 니즈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실천의 중심이 직원이니까요. 그리고 공간과 분위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도 시도해서 새로운 계층이 찾아오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홍

덧붙여, 저는 조직 내부를 향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외부 사업 참여로 전문성이 분산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조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고요. 또한, 이용자 현황에 대한 밀리유 분석, 즉 지역사회와 복지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대상자 중심의 교육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지희

저는 '진지한 여가'가 일의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걸 일로 하고 싶다는 욕구,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는 것에 대해 노인복지관 실무자들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네트워크 강점을 살려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슈나 신규 대상자 욕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관 차원의 환경 변화와 예산 수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도서관, 문화센터 등과의 협약이나



이슈와 농자 4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다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여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기회도 필요하고요.

수경

저도 현장에서는 먼저 여가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문화적 소양 확대와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요. 학습자 환경 파악을 위한 학력, 직업, 취향, 학습 동기, 삶의 철학, 일상 리듬 등 정성적 요소까지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 유형을 정리하고 사회적 배경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화 프로그램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효율성과 효과의 균형을 찾아야 해요. 모듈형 프로그램 구성이나 민간 협력을 통한 강좌 다양화 및 비용 분담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윤정

맞아요. 우리가 노인 여가 문화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관점을 다시 고민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관과 각 기관의 여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언어적으로 구성해 내는 사회적 공간인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노인 복지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 스스로 자신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체적 행위 역량을 갖춘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우

다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결국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노인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겠어요. 단순히 여가 제공을 넘어 '진지한 여가'를 통한 전문성 함양과 일자리 연계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와 농자 4회기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이슈와 눌자 4회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학습 내용

- 제목: 진지한 여가(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노인교육 어떻게?)
 - 강사: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시대의 변화에 따른 노인 평생학습의 변화상과 노인복지관에서의 노년사회화교육의 대응
- 노인복지관으로의 새로운 노인세대와 새로운 욕구를 가진 노인들의 유입에 대한 대응 상황
- 노인복지관의 강점과 단점을 점검

나의 생각

시대와 상황의 빠른 변화와 기술력의 발전, 사회문화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노인세대의 욕구 변화와 학습 욕구의 변화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출발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었으나 지금은 노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서의 노인교육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일정 부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잘 고려하여 조화롭고 장기적인 노인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준비하여 실천해가야 할 시기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모든 것이 그렇듯 철저한 상황파악에서 그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현재의 우리 조직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진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의 조직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은 지점이다.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조직의 특성상 인력충원이나, 재정확충의 어려움 등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듈다.

물론 이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이슈와 놀자	4 회 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윤현주	

학습 내용

이번 특강은 노인복지관에서의 노인교육 방향성에 대해 기관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강의였다. 주요한 점은 고학력 노인세대 등장 및 다양한 취미 노인 등장으로 이전 세대보다 일과 여가, 학습의 균형을 희망하는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지형이 달라지는 구조 속에 백화점, 평생학습관, 대학에서도 시니어 아카데미가 열리는 등 적극적인 시니어 그룹이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문화적 밀리유(milieu)가 달라지고 있는구조 속에 노인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도 인간교육, 교양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인복지관의 경쟁력 요인으로 공간과 분위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련칭, 진지한 여가에 대해 고민할 꺼리를 던졌다. 특별히 '진지한 여가'에 있어 복지관 프로그램과의 연결 고리를 중요성을 얘기하며 일자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진지한 여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의 생각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지속가능하고 내가 노인이 되어서 가고 싶은 복지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에 맞춰 필수 사업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매여있는 것은 없는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복지관 프로그램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곰꼼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겠다.

특별히 학습자층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어 있는지, 실적에 메이지 않는 소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실무자들의 풍요함, 다양함, 창의적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결국 사람을 다루는 사회복지현장은 사람의 니즈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실천의 중심이 직원들이기에 문화적 역량과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직원들 안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또한 환경이 그 문화를 지배할 수 있기에 공간과 분위기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이 시도하고, 새로운 계층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쾌적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해야겠다.

 이슈와 눌자 4 회 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정수홍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학습 내용

이번 특강은 노인 여가 교육의 당면 과제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 세대의 유입 부족, 경쟁 기관의 증가, 프로그램 및 학습자의 정체, 기관 정체성의 모호함 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간교육과 시민교육을 강화한 교육 내용 개편,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소속감, 고독 문제 해결 등)을 제안한다. 특히, '진지한 여가'를 통한 전문성 함양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핵심은 변화하는 시니어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노인복지관이라는 기관의 정체성 아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생각

노인복지관의 미래를 고민함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나 유행을 쫓기보다는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기관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따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기관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진다. 특히, 노인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쟁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기존의 트렌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본질적 접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실천 현장에서 보면, 조직 내부를 향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외부사업 참여로 인해 전문성이 분산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조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강점은 같은 목적을 지닌 기관들과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행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이용자 현황에 대한 밀리유(milieu) 분석, 즉 지역사회와 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교육 설계가 가능해지고,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와 농자 4회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정지희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학습 내용

1. 노인복지관의 노인여가문화 진단

- 새로운 학습자층의 유입미흡, 경쟁기관의 등장, 정체된 프로그램과 학습자, 기관정체성의 재정립

2. 새로운 학습자층의 등장

- 이전 세대와 비교, 새로운 다양한 취향공동체 등장, 이전 세대보다 일-여가-학습의 균형희망

※ 이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량과 환경분석 등을 통해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노인여가문화에서 새롭게 시도했으면 하는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 변화해야 할 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됨.

나의 생각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년사회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한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새로운 학습자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본 기관의 신규회원 가입층을 고려할 때 현재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동래구노인복지관의 경우 2024년 증축 및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재개관 한 이후 등록회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 더욱 그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음.

집단 스크리닝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고민되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에 대한 스크리닝 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음.

현장의 준비와 대응

진지한 여가로 시작하여 일의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아하는 걸 일로 하고 싶다는 욕구, 은퇴 후의 삶을 재설계하는 것에 대해 노인복지관 실무자들간의 진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음.

노인복지관의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노인여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이슈와, 신규대상자의 욕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환경적 변화와 예산수반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도서관, 문화센터 등과의 협약 또는 협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임.

 이슈와 놀자	4 회 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정수홍	

학습 내용

1.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하는 욕구 대응

변화된 특성인 고학력, 다양한 취향, 주체적 학습 욕구는 기존 집단중심의 일방향 프로그램으로는 대응 한계가 있음. 이전보다 일-여가-학습의 균형을 희망, 개인화 추세는 소규모화, 맞춤형 프로그램 증가가 필요함. 이에 따라 개인화가 비용 증가로 연결되므로 효율성과 효과의 균형이 필요함. 대응전략은 모듈형 프로그램 구성 (맞춤 조합 가능), 민간 협력 통한 강좌 다양화 및 비용 분담

2. 노인복지관의 정체성 점검

강점 살리기 방안: '우정'과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 (예: 스토리텔링, 삶 나눔 모임), 커뮤니티 중심형 교육모델 (소모임 → 네트워크화) 확대적용

3. 사회문화적 Milieu(사회적 배경) 분석의 필요성

교육형태 전반에 영향을 미침 : 교육내용, 방식, 강사에 반영됨

학습자 환경 파악을 통해 타당한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학습자 배경조사 (학력, 직업, 취향 등), 학습 동기, 삶의 철학, 일상 리듬 등 정성적 요소 포함하여 조사 필요함. 정량·정성적 조사로 학습자 유형 정리 필요, 사회적 배경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차별화 필요

4.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과제

인간-세계와 관계맺기(상호영향), 인간교육, 교양교육의 장으로 존재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며 삶의 정향을 위한 방향적 지식을 위한 교육 필요 / 문화교육-문화가치 공유 및 삶의 취향을 전유.공감.공동체활동으로 연계 / 시민교육의 장 – 시민들이 언어적으로 구성해 내는 사회적 공간, 인간내러티브 확장형 콘텐츠 개발 필요, 알고리즘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 중심 교육”

나의 생각

노년사회화교육이 취미여가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대처 점검이 필요함. 노년사회화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함과 더불어 신규 이용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임. 물론 이용자 특성, 물리적 환경, 재정적 한계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도와 검토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노인복지관 현장은 여가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이해 필요
2. 종사자들의 문화적 소양의 확대와 경험
3. 이용자들의 사회문화환경 조사에 관한 공동적용 검토 논의

 이슈와 농자 4회기	주제	노인 여가문화(평생교육) 트렌드 “진지한 여가 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일시	2025. 7. 14.(월) 15:00~18:00	학습자	최윤정
	장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학습 내용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이병준 교수님을 모시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노인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함께 하는 동아리 소속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하여 노인 여가 문화의 트렌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 현장으로 성장하여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종합적으로 기능이 다변화하면서, 노인여가의 실천의 장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노인여가의 경우 새로운 학습자층의 유입이 미흡한 반면, 경쟁기관들의 등장, 정체된 프로그램 및 학습자들로 인해 기관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전세대와 비교되는 고학력 노인세대의 등장, 일-여가-학습의 균형을 희망하는 학습자층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취약계층 시니어들의 학습공간, 저렴한 학습 복지, 복지과 교육을 한 공간에서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가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milieu를 파악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학습하는 자리였다.

나의 생각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는 기관의 운영전략이나 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그 운영형태 및 역할이 다양하다. 때로는 여가만 하면 된다는 하고 곳도 있고, 때로는 여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 복지관은 여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노인복지관 사업을 확산해왔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여가의 트렌드를 알고 여가의 욕구를 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회문화적 milieu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수준 등 우리 이용자에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욕구의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공간과 분위기의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런칭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노인 여가 문화 트렌드를 이해하고 노인 여가 문화의 관점을 다시 고민하고,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관 및 각 기관의 여가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언어적으로 구성해 내는 사회적 공간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노인복지관, 자신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의 양성, 소외계층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역량 등 주체적 행위역량을 갖춘 교육의 장,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의 제공을 등 노인의 진지한 여가가 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기관에서 고민하고 담고자 한다.

THEME #5

기
후
위
기

 <p>이슈와 농자 5회기</p> <p>활동 소개 합니다</p>	활동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6:00~18:00
	장소	동래구노인종합복지관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활동 내용	<p>1. 학습내용</p> <p>가. 기후위기 관련 핵심 개념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변화로 상당 기간 관찰되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입니다. • 기후위기 (Climate Crisis):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 불가능한 위협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Climate Adaptation):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달음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 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 경제적 및 세대 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 탄소중립 사회 (Carbon-Neutral Society):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p>나.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의 연관성</p> <p>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p>



이슈와 농자 5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 니다

활동 내용

- 회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 사회 취약성 이론 (Social Vulnerability Theory):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 접근성, 장애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특정 집단을 재난 및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 환경 정의 이론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그룹이 환경적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한 정책과 실천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 환경 속의 사람 (Person In Environment): 사회복지 전문직은 '환경 속의 사람'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때 환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평등한 피해: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소득이 낮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건강·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폭염, 한파, 흉수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이는 건강, 주거, 생계, 돌봄 등 인간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환경불안 (Eco-Anxiety): 환경 파괴에 대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로, 정신적 건강, 우울, 스트레스 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류의 노력 및 정책

- 글로벌 및 국가적 노력: 파리 기후변화협정, 각국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 에너지, 교통, 건축, 복지 등 전 영역에서 녹색 성장을 촉진 하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여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도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복지관이 기후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결될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주제토론

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시우

우리 인류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편안함을 주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폭염, 폭설 같은 이상기후, 물과 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 불가능한 위협이 되고 있죠.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



이슈와 농자 5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 니다

활동 내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로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인 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 점검과 흑한기, 흑서기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지원을 해야겠지만, 나아가 1개 복지관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같이 검토 해야할 과제로 이끌어가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수경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회복 불가능한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후환경 실천을 내재화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차원의 운영 전략과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주

정확합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폭염, 한파,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까지 의무화하여 우리 복지관들이 기후 안전망으로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복지관들은 위기 대응 매뉴얼(폭염 쉼터, 대피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법적 흐름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지희

그러한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은 사회취약성 이론과 환경 정의 이론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 접근성, 장애 유무 등 여러 요인이 특정 집단을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하게 만들며,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저는 복지관이 지역 내 기후위기에 노출된 취약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너지 효율 개선, 창호 교체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집단 프로그램 구성도 필수적입니다.

수홍

이러한 환경취약계층 돌봄은 우리 사회복지의 전통적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환경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요구자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 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며, 노인이 주도하는 친환경 동아리나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기업의 책임 강화, 정책 제안·감시, 지역사회의 관심 확대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슈와 농자 5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윤정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재난의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건강·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조항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합천군, 담양군, 서울 일부 자치구의 '인명 피해 제로' 성공 사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회복지적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린 사회복지(Green Social Work)'의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예방, 지역 기반의 대응, 장기적 복구, 그리고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린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력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요구되는 통찰

수경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이 가져야 할 통찰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는 곧 복지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건강, 주거, 생계, 돌봄 등 인간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후 대응을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윤정

관련해 우리 노인복지관협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제품만을 후원 또는 납품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드는겁니다. 일정 부분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선제적 정책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노인복지관이 가져야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늘 정책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경우 결국 환경취약계층의 돌봄문제는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으로 설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 역할의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다른 환경 관련 영역들이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홍

사회복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지역 사회 회복력의 설계자로 역할을 확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정책 개발, 취약계층의 권리 대변, 정책 제안, 그리고 환경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받고 실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슈와 농자 5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지회

기후위기 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통합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염 쉼터나 재난 시 대피 지원 같은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재난 예방 교육 및 훈련, 심리정서적 지원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개입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등 권리 존중적 관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통합돌봄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부연락에 “나 안죽었다”며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반응도 있는데, 우리의 돌봄이 행정편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당사자아의 생각이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우

몇몇 시설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기업차원의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월등히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적 연대의 강화라는 방향성이 개인적 노력을 독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기후위기 대응 커뮤니티 활동, 환경 공동체 조직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기후 회복탄력성도 높이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감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주

사회복지기관 역시 ESG 경영을 실천하며 친환경 제품 사용,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은 충분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와 농자 5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이슈와 놀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학습자	박시우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학습 내용

■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자료 검토

- 인류의 각종 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체계의 변화(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후, 식량 및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 파리기후변화협정, 각국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약칭: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 및 시행 등

나의 생각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각종 변화와 이상 현상들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가 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도와가며 공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이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의 영역에 다다르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함과 안락함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와 집단이 가지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에 어느 한 국가나 집단의 양보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들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위기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나가는 노력들을 해야할 것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 노인복지관의 역할 및 대응과제 찾기

- ESG 운영의 실천 :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조직운영
-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 ESG 운영을 실천하는 기업·조직과 거래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기 등
- 노인돌봄 체계 점검 :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인의 돌봄 체계(주거, 건강 등) 점검, 폭염기, 폭설 기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지원 등 검토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익 대변, 정책의 제안 등

 이슈와 농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윤현주	

학습 내용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담고 있다. 단순한 환경법을 넘어 산업·에너지·교통·건축·복지 등 전 영역에서 녹색 성장을 촉진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명시하고 있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예로, 에너지 비용 상승 시 저소득층 지원,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보호 대책이 포함된다.

법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도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복지관이 기후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결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의 생각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폭염·한파·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집단이 노인·아동·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후 안전망으로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법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에너지 접근권과 직결된다. 사회복지 현장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경제·기술 중심 담론에 가까울 수 있는데,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기후 대응”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기후법을 사회적 돌봄과 연결지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기후재난 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위기 대응 매뉴얼**(폭염 쉼터, 재난 시 대피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과 실천 매뉴얼을 법적 흐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설비 도입,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은 **기관의 탄소중립 실천의 예**로 보여줄 수 있기에, 지역사회와 가까이 있는 복지기관들이 시민의식 계몽을 위한 실천 노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발굴, 민관 협력, 기후복지 서비스(재난 심리상담, 기후적응 교육)를 복지 현장에서 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슈와 농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정수홍	

학습 내용

• 환경취약계층 돌봄과 역량 강화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하고 불평등하게 작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주거·교육·건강 등 여러 권리 영역에서 침해를 겪을 수 있어 ‘환경적 돌봄’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부담 완화, 기후복지 증진에 힘쓰고, 환경 돌봄 공동체를 형성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기후정의 실현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며, 사회·경제적·세대 간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의 부담과 녹색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 정의로운 전환 추진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재교육·재취업·전직 지원, 고용영향 조사, 기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대응, 불평등 완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의 생각

오늘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은 선택이 아닌 핵심 비전으로 자리 잡으며, 환경 문제는 기업·정부·개인 모두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는 환경문제를 ‘환경 돌봄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첫째, 인간 중심 접근이다.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가 농민의 생계나 빈곤층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등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환경적 위험 노출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한다.

둘째, 통합적 접근이다. 환경 문제는 경제·사회·문화가 얹힌 복합 문제이므로, 단순 지원이 아닌 다각적 해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염에 선봉기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지원 정책과 비

 이슈와 눌자	5 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정수홍	

취약계층의 절약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 참여이다. 정부·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실천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강화, 정책 제안·감시, 지역사회의 관심 확대를 포함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은 먼저 환경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지원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주거 환경을 조사하고, 단열·창호 교체·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폭염과 한파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정부 지원을 안내·연계하고, 경로당과 노인 쉼터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해 기후재난 시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환경 실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폭염·한파 시 건강관리 요령과 미세플라스틱, 폐의약품 등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과 같은 실천 방법을 교육하며, 이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노인이 주도하는 환경 공동체를 조직하고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동아리, 재활용품 교환 사업, 친환경 정원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생활 활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과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교육과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심리 상담과 회복 지원 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기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 쉼터를 재난 시 안전한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을 발굴해야 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녹색 일자리를 발굴·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령농이나 지역 기반 노동자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생계 위협을 받는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슈와 농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학습자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정지희	

학습 내용

-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주요이론

- 사회취약성이론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에릭슨과 동료들이 2007년에 제시한 취약성 지표를 기반으로 함. 이 이론은 상회 경제적 지위, 자원접근성, 장애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특정 집단을 재난 및 환경변화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가정
- 환경정의이론 :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그룹이 환경적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한 정책과 실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제56차 연례 프로그램 회의

- 사회복지 전문직의 환경속의 사람(Person In Environment)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환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

- 기후위기 요인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증가

-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구의 기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
- 최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속도를 볼 때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위기로 보아야 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의 생각

기후위기 변화는 경제, 건강, 사회, 환경 등 인간 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 건강, 주거, 생계, 돌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대응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부산의 날씨를 보면 폭염 또는 폭우로 나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또한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약한 주거환경이 폭우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 그리고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의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빈곤이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단편적으로는 폭염경보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낮시간 활동 제약과, 폭우로 인한 재난문제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작은 환경실천에서부터 복지관 운영에도 ESG실천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슈와 눌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학습자	정지희

현장의 준비와 대응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발굴

- 지역 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로 실질적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너지 1등급 전자제품, 창호 교체 등) 연계 등 취약위기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변화와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 필요

- 복지관 내 프로그램 개설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후 위기 대응 커뮤니티 활동 또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 동래구노인복지관 에코봉사단 : 폐현수막 및 폐의류를 활용한 에코백을 만들어 시장에 무료로 배포하여 비닐봉투 보다는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우울감 및 감정 변화에 대한 대응

- 비가 오는 날에 유난히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날씨 변화에도 사람의 감정을 반응하고 있음. 미국심리학회 보고서에서는 환경파괴에 대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환경불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불안은 정신적 건강, 우울, 스트레스 등을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과, 관련 집단프로그램 구성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복지관의 ESG경영 실천

- 그 외에도 복지관 운영에서도 환경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이슈와 놀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학습자	조수경

학습 내용

기후관련 개념정리

- 기후변화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인해 상당 기간 관찰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 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월을 초래하여 확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기후정의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 경제적 및 세대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
- 탄소중립 사회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하는 사회

나의 생각

환경에 관한 여러 쟁점이 있지만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이다. 전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할지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지 검토와 이해없이 일반적인 실천이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개념을 확인하고 현장의 실천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후환경실천을 내재화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적 실천만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세와 인식보다 세계시민권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환경을 이루고 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역할을 포함하는 실천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연계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체감가능한 전략을 검토하여

 이슈와 놀자	5회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4:00~16:00		
		장소	동래구노인복지관	학습자	조수경

야 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맞춤형 실천과제

2025년 폭염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빈번한 공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대응은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일시적 물품지원, 활동의 중단이라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주 이용자로 만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관한 안전망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계층의 재난 민감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안내, 주거환경개선, 주민교육, 쉼터의 실질적 기능이 병행되는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기관 차원의 운영전략 반영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기후정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운영전략을 구체화하여 종사자 및 이용 회원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3. 환경관련 프로그램 계획시 학습의 강화

대부분의 기관에서 환경 관련 단위사업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 활동내용은 단편적인환경 보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 기후정의 등 교육 회기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업으로 존개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슈와 농자	5회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6:00~18:00		
		장소	할리스 동래식물원점	학습자	최윤정

학습 내용

1. 기후재난의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폭염 일수는 꾸준히 늘었고, 국지성 폭우는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불러왔다.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건강·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충격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재난 속에서 개인·가족·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조율하는 전문 인력이다.

2. 기후정의와 사회복지는 연결된다.

우리 사회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물리적 피해 복구’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소득·건강·주거에서 이미 취약한 이들이 재난 앞에서 더 큰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은, 기후재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임을 보여준다. 저소득층·비정규직·노숙인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같은 인구학적 취약계층, 저지대 거주민·농어촌 주민 등 지리적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사회적 고립계층과 같은 건강·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위험에 놓여 있다. 환경 변화가 사회적 불평등과 만나 더 큰 재앙을 만들 어내는 지점에서 사회복지와 기후정의가 연결된다.

나의 생각

1.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복지실천방향

기후위기시대에서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한 환경을 제거하거나 변화하기 위한 개입활동을 하는 전문가로 기후환경 변화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삶의 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기후변화와 사회복지인권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국가는 예측가능한 장기적 피해를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피해를 예방위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권, 참여권, 사회권등 인권에 침해사례를 발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는 사회복지정책에 변화를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사가 탄소 줄이기 위한 노력, 경로식당 등 친환경 소재 사용, 시설의 관련규정 점검 등을 살펴야 하며, 후원물품 등 에너지 1등제품 사용등으로 개인 및 조직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환경 교육, 환경관련위원회 참여, 조례 제정 등에 위원회 참여등 사회복지사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을 인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슈와 농자	5회 기	주제	기후위기 대응, 노인복지관의 역할 - 적용과제 찾기		
		일시	2025. 8. 22.(금) 16:00~18:00		
		장소	할리스 동래식물원점	학습자	최윤정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사회복지와 성공 대응 사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IERE)의 ‘기후취약성 지도’는 사회·경제적 민감도, 환경 노출도, 대응 능력을 종합해 위험 지역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제지표 ND-GAIN에서도 한국은 ‘취약성은 높고 준비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은 ‘인명 피해 제로’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 합천군 사례: 기록적 폭우(군 평균 500mm, 최대 712mm)에도 전 부서 비상체제와 전주민 대피 명령으로 인명 피해 ‘0건’.
- 담양군 사례: 최대 615mm 폭우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재난안심꾸러미와 긴급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 ‘0건’.
- 서울 일부 자치구 사례: 폭염 시 커뮤니티 케어 경보체계와 사회복지사 현장 대응으로 독거노인 열 사병 환자 ‘0명’.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회복지적 개입’이다. 이는 영국 사회복지학자 레나 도미넬리(Lena Dominelli)가 제안한 그린 사회복지(Green Social Work)와 맞닿아 있다. 도미넬리는 ‘그린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전 예방, 지역 기반의 대응, 장기적 복구, 그리고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아우르는 개입을 강조하며, 재난 속 사회복지사를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력의 설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 통합적 시각은 기후위기의 사회적 해석과 복지의 실천적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2. “구체적 실행 모델 “맞출돌봄사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험군 사전 파악: 기후 위험지도와 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취약군을 미리 파악한다.
-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 사회복지사와 지역 자원봉사자가 연락·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피시키고, 쿨링센터·비상쉼터를 가동한다.
- 현장 대응: 민·관 협력망을 활용해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긴급 지원을 강화한다.
- 심리, 건강 회복: PTSD 조기진단, 집단상담, 자조모임을 통한 심리지원 제공한다.
- 지속 가능한 복구: 에너지 인프라 재건, 피해 주민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복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사의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한다.

⇒ 기후위기 시대, 사회복지는 생존 전략이다.

폭우·폭염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재난이다. 위의 사례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사회복지적 설계가 빚어낸 성과였다. 단순히 경제적 빈곤층만이 아니라, 회복 능력이 낮은 모든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합한 사회복지적 접근, 그리고 환경정의와 사회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전략만이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해법이 될 것이다.

THEME #6

돌
봄
의

사
회
화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 을 소 개 합 니 다	활동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장소	서면 지유명차
	활동 인원	박시우, 윤현주,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6명)
1. 학습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도서명: 돌봄이 돌보는 세계 작가: 조한진희 외 <small>(※ 기획 다른몸들: 질병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small> 주제: 이 책은 돌봄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조명하며, 장애·질병·의존의 경험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비판한다. 나아가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제시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20px;"> 활동 내용 </div> <div style="flex: 2; border-radius: 50%; background-color: #e0e0ff;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수경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20px;"> <p>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책 「돌봄이 돌보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돌봄을 단순히 취약계층을 돋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서이자 핵심 가치로 재조명하고 있는 데요,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돌봄을 단순히 취약계층을 돋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서이자 핵심 가치로 재조명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adding-right: 20px;"> 활동 내용 </div> <div style="flex: 2; border-radius: 50%; background-color: #e0e0ff;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시우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20px;"> <p>맞습니다. 책은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돌봄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질병, 젠더, 노동, 교육 등 여러 영역과 연결해 돌봄의 사회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 제도의 관점을 넘어, 가치와 관념으로서의 돌봄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죠.</p> </div> </div>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수홍

저는 이 책이 돌봄을 새로운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혁명적인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감으로써,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돌봄을 받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과 연대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죠.

윤정

네, 책의 구조를 보면 몸, 제도, 가치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돌봄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문제부터, 돌봄을 제도화하는 방식의 한계를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현주

돌봄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죠. 돌봄 노동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돌봄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사회적 인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희

맞아요. 책에서는 돌봄이 생명을 유지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회가 돌봄 노동을 '투명하게' 만들며 유지되어 왔다고 비판하죠. 특히 여성의 보살핌 노동이 성 역할로 미화되거나 당연시되어 온 젠더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나의 생각(개인적인 통찰 및 문제의식)

수경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들 잘 정리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각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문제의식을 나눠 볼까요? 저는 돌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관계가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애주기에 따라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시우

저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필수노동인지 실감했기에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책에서 돌봄을 장애인 이동권처럼 사회구성원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돌봄국가책임제' 같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겠죠.

윤정

'권리'라는 말씀이 핵심이네요. 저 또한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봄이 생산 노동 중심 사회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희

저도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돌봄 노동에 청소원이나 소방관처럼 합당한 대우가 보장된다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즉 통합돌봄이 충분한 예산 없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수홍

좋은 지적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이 돌봄 노동을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투명한 노동'으로 분석한 점은 매우 탁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돌봄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돌봄을 제시하는 경향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게 되더군요.

현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인프라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해서 실제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3. 현장의 준비와 대응(실제적인 제안 및 방향성)

수경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고민들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부터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이를 위해 돌봄을 권리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마련해야 합니다.

윤정

저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로,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기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서비스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홍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협력적 돌봄으로의 '진정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단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상호 교환적 돌봄 관계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죠.

시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무작정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 민, 학계가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희

맞습니다. 특히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요.

현주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감정적, 신체적 노동 부담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과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의 희생 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기관 내 슈퍼비전이나 심리상담 같은 소진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예방 지원도 제도화되어야겠죠.

수경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학습내용부터 각자의 생각, 그리고 현장의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돌봄의 권리화, 당사자 중심의 실천,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슈와 농자 6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Personal Reviews

 이슈와 돌봄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자		

학습 내용

- 제목: 돌봄이 돌보는 세계
- 저자: 조한진희 외(다른몸들 기획)
- 출판연도: 2023년

이 책은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나타난 취약계층의 돌봄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돌봄, 장애인 및 노인의 돌봄 등 다양한 사람들의 돌봄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돌봄을 질병, 정신장애, 신체장애, 인권, 돌봄 노동, 의료, 교육, 젠더, 돌봄의 혁명, 돌봄노동자의 이주, 탈성장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적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제도와 복지적 관점에서 돌봄을 다루기 시작해, 가치와 관념으로서의 돌봄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 교육, 의료 제도로서의 돌봄을 다루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며 그 개선방향을 진단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 안에서 어떻게 돌봄이 평가되고 자본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사회 질서로서의 돌봄을 조명하면서,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독립과 자율성, 모성의 개념을 검토하며 보살핌의 가치를 젠더를 넘어선 인간의 조건으로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의 개념과 돌봄 문제를 이야기하며 성장·기후·식민의 문제와 돌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생각

앞서 AI와 노인복지에서도 다루었듯이 코로나 펜데믹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돌봄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돌봄의 문제를 기본적 인권과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재난상황 속에서 돌봄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필수노동인지 깨닫게 만들었다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와 코로나를 지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돌봄국가책임제, 통합돌봄, 맞춤돌봄, 양육 돌봄수당 등 각종 정책들과 제도들이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슈와 놀자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자		

또한 인권과 사회권 차원에서의 돌봄을 다룬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동권, 보행권 등 누구나가 불편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슈화가 되었던 것처럼, 돌봄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야기하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문제, 여성에게 과도하게 쓸려있는 돌봄 노동의 문제, 나이가 아주 노동자들의 문제 등을 다룬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현재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돌봄에 대하여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은 정책과 행정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1회기 때 통합돌봄에서도 다루었듯이 하지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에 시행해오고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와 돌봄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에 대한 검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본다. 돌봄정책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 관의 역할과民間의 역할, 조직의 구성, 인력체계의 재편 등 관과 민,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들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 눌자	6 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차	윤현주	

학습 내용

돌봄은 탄생, 성장, 병, 노년, 죽음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지만 기존 사회 질서가 돌봄을 주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질서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 돌봄 중심의 정책,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돌봄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 노동은 실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감정노동 등 돌봄 노동자들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그 노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돌봄 노동의 권리 확보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돌봄 인력이 이주민 중심으로 공급됨으로써 돌봄 노동자들의 자격과 권리를 재고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돌봄은 삶의 질, 지속 가능성, 관계와 상호의존, 공동체 돌봄 같은 비성장적 가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나의 생각

돌봄의 권리화, 돌봄 노동자 처우의 개선, 돌봄서비스의 공공화 등이 제안되었지만 예산, 인프라, 행정력 등의 청사진이 부족하여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돌봄 혁명, 돌봄의 민주적 전환 등의 개념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민간의 협업으로 돌봄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돌봄을 단순히 도덕적, 감정적 행위로서가 아닌 사회·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봐야 할 것이다. 특별히 돌봄 대상자에 맞춰진 정책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돌봄 제공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들의 지원이 포함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제도적 / 정책적 공공성 확보

돌봄이 시장이나 가족 개인의 뒷으로만 남지 않도록, 공공서비스·공공재로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법제도, 예산, 인프라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윤리적 실천 + 지속가능성

돌봄 제공자 스스로의 자기돌봄(self-care), 돌봄 대상자와 제공자 간의 윤리적 관계, 돌봄 제공 체계(시간, 공간, 인력 등)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돌봄 노동의 인정과 보상

돌봄 노동자 및 제공자의 감정적, 신체적 노동 부담, 위험, 스트레스 등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 및 노동조건 확보, 인권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슈와 농자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정수홍
	장소	서면 지유명차		

학습 내용

이 책은 돌봄을 단순한 개별적 서비스나 시혜성 복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혁명적 저작이다. 다양한 영역의 저자들이 질병, 장애, 의료, 젠더, 노동, 교육 등 10개의 키워드를 통해 돌봄에 얹힌 다층적 현실을 조명한다.

특히 질병 당사자와 장애인의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을 사유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봄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 사고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자본·경쟁 중심 사회에서 돌봄·연대·상호의존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과 당면한 기후위기는 기존 체제의 한계를 여실없이 드러내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이 사회운영의 핵심원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생각

돌봄노동의 저평과 젠더 불평등을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모순으로 진단하는 점은 탁월하다. 특히 돌봄노동이 '투명한 노동'으로 취급되어 온 현실을 폭로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었음을 밝혀낸 분석은 매우 통찰력 있다.

다만 돌봄 중심 사회로의 구체적인 전환 경로나 실행 방안에서는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돌봄을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향과 돌봄 자체의 내재적 권력관계나 부작용에 대한 성찰도 아쉬운 부분이다.

돌봄노동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임을 강조하며, 돌봄노동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의 현실적인 노동조건 개선이나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거리를 남긴다.

돌봄수혜자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의존적 약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 관계 속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한다. 장애등급제 비판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도적 폭력을 고발하고, 돌봄수혜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과연 이것 뿐인가하는 개별성과 충분성 관점에서의 고민거리를 남긴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첫째, 관계 중심의 통합적 돌봄 접근

노인복지실천에서 신체적 돌봄을 넘어서는 관계적·정서적·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

 이슈와 놀자	6 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차	정수홍	

다. 노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상호 교환적 돌봄 관계의 주체로 인식하고, 노인의 생활사와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의 민주성과 참여적 의사결정

노인복지현장에서 당사자 참여형 서비스 계획 수립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돌봄의 민주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전문가 중심 서비스에서 노인 당사자 중심의 협력적 돌봄으로의 “진정한”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인정과 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현장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관계적 전문성과 윤리적 실천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훈련을 넘어서 돌봄윤리 교육과 성찰적 실천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슈와 농자	6 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차	정지희	

학습 내용

- 돌봄문제는 질병, 장애, 의료, 젠더, 노동, 교육, 계급, 인종, 자본, 국가, 성장중심주의 등 다양한 현실이 얹혀있음
- 이 책에서는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 돌봄이 우리사회에서 취급되어 온 방식과 경로를 검토하면서, 돌봄노동을 투명하게 만들며 유지되어 온 지금의 사회를 비판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결하는 돌봄이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탐색.
- 정신장애: 정신장애인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와 책임을 강조.(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전문가들에 의해 그들을 가두는 것만이 돌보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김.
- 장애: 장애를 중심으로 돌봄사회를 구상하는 일은 결국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문제를 인간 보험의 필연적인 문제로 직시하는 일
-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야 함
- 노동: 여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급격히 시행한 것이 지금의 돌봄제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돌봄 종사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아이러니 함.
- 교육: 아이 하나를 키우리 위한 온마을이 필요한만큼 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현실은 교육에서도 돌봄보다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젠더: 여성의 보살핌노동은 성 역할로 미화되거나 본질화 되어 있음.

나의 생각

-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 과연 예산을 충분히 수반하지 않은 지역사회 돌봄이 얼마나 지속될수 있을까?
- 돌봄을 공간적, 시간적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면 모두가 함께 돌봄이 가능한 삶을 놓칠 수밖에 없음.
- 정책으로서의 돌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녀, 부모, 가족,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었음.
- 열악한 처우와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한다면 인식또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청소원, 소방관?)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 돌봄이 저평가되고, 여성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대우가 무엇보다 절실함.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2.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충분한 예산의 수반은 반드시 따라와야 할 일이며,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이슈와 놀자	6 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장소	서면 지유명차	학습자	정지희

만들어 가는 것이지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통합돌봄을 시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임.

3. 통합돌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공공의 인식과 전문가다운 업무 수행이 필요함.
4. 의료, 교육, 복지, 생활 전 영역에 돌봄이 있지만 그 평가는 다름.
5.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이슈와 놀자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조수경
		장소	서면 지유명차		

학습 내용

돌봄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재조명하는 책이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거나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자들은 돌봄이 단순히 취약한 사람들을 돋는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서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돌봄을 인간 삶의 기본적인 원리로 바라보며, 개인과 공동체, 국가가 돌봄을 어떻게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돌봄운동으로 좋은 삶을 목표로 해야함.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배려의 문화를 보장해야 함, 돌봄노동에는 시간이 필요함, 주거는 인권, 교육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에 더욱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방향과 함께 하는 공적인 것의 가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의 생각

돌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약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의존하여 일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낙인감으로 인식되거나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며 그 과정에 권력관계(계급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의 성차별성, 돌봄의 가치 저평가, 돌봄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 돌봄의 시장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어 오는 이유는 인간라면 생애주기에 따라 의존의 정도가 다를 뿐 절대적인 의존상태를 겪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무언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취약성을 개인의 상태로 인한 것으로 여기며 돌봄(의존해야)을 받아야 자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돌봄에 있어 익숙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외에도 질병, 정신장애, 교육, 젠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돌봄과의 관련성과 돌봄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게 되었다. 의존(dependence)과 돌봄의 정상성,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불평등, 제도 실패와 돌봄의 외주화, 공공성 약화, 돌봄과 젠더, 인종, 계급의 교차성, 탈성장, 기후위기, 사회 전환과 돌봄에 대한 쟁점을 깊이 재검토할 필요를 제시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돌봄이 더 이상 개인적인 사회적 돌봄의 수준에서 논의되거나 시장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하는 사회로 돌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 각자가 처한 삶의 목적들을 고려한 종체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취약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취약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로서의 돌봄 인식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함이다.

 이슈와 놀자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학습자	
		장소	서면 지유명차	최윤정	

학습 내용

1. 몸과 돌봄

질병, 장애, 정신장애 등 돌봄의 필요와 의존성은 본질적으로 배제되거나 약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돌봄의 권리와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2. 제도와 시스템 속 돌봄

노동제도, 교육, 의료, 돌봄 노동자의 돌봄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와 노동 조건, 돌봄과 교육, 의료가 분리되는 문제, 돌봄을 제도로 조직화하는 방식의 한계 등을 비판한다.

3. 가치, 윤리, 사회질서의 돌봄

젠더, 탈성장, 사회 전환, 돌봄 민주화 등 돌봄이 여성 중심으로 귀속되는 구조, 돌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회 질서의 가능성, 공존과 연대의 윤리 등을 살핀다.

나의 생각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돌봄의 공백이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는지는 직간접 체험을 하였고, 이러한 돌봄의 공백이 비단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게 아니라, “의존과 질병의 정상성에서 사회가 특정 형태의 의존만을 약자로 간주하고, 배제하는 방식, 돌봄을 받는 주체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지 않음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자 방식의 돌봄) 방향성의 돌봄 정책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과 돌봄 노동의 경시 등 돌봄 중심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 돌봄은 저평가된 필수적 활동으로 돌봄 노동은 생산 노동 중심 사회 질서 안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고, 여성 노동에게 전가되어 왔다.

2. 돌봄의 권리화 / 돌봄 주체의 회복

돌봄을 받는 사람도 권리의 주체이며, 돌봄을 요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의 수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제도 설계나 복지 정책만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돌봄 중심의 윤리와 사회적 동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4. 돌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으로 돌리고 돌봄 중심의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장의 준비와 대응

1. 이용자 중심 실천

정신장애인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챕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됨.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대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물어

 이슈와 놀자	6회 기	주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돌보는 세계」를 읽고		
		일시	2025. 9. 24.(수) 12:00~15:00		
		장소	서면 지유명차	학습자	최윤정

야 할 것 같다. 복지관, 주간, 지역돌봄 서비스에서 참여형 의사결정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그에 대한 질문과 참여의 형태를 더욱 적극 확산하여야 한다.

2. 돌봄노동 가치 인정

돌봄 노동의 저평가는 돌봄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가져가는 상황임. 이에 감정, 신체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식 보장을 제도화 요구하여야 하며, 기관 내에서 슈퍼비전 심리상담 휴게 공간 등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노동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돌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3. 의존과 취약함의 정상화

장애인, 노인, 아동을 의존적 존재로 낙인찍는 언어와 태도를 교정하기, 교육 홍보 활동에서 의존은 비정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프로그램 기획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함으로 위치를 재정립할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 중심접근

이웃돌봄네트워크 구축 등 돌봄을 공동 책임으로 나누는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 접근을 통한 돌봄의 강화

5. 지속가능한 돌봄으로의 생각의 전환으로 복지현장에서 친환경 급식, 지역자원순환 등 돌봄을 생태적으로 연결해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ME #7

정
치
참
여

 <p>이슈와 농자 7회기</p>	활동 주제	한국사회복지의 정치참여와 정책 의제
	일시	2025. 10. 22.(수) 16:00~18:00
	장소	부민노인복지관
	활동 인원	박시우, 정수홍, 정지희, 조수경, 최윤정 (5명)
<p>■ 주제토론</p> <p>한국 사회복지 분야의 정치 참여 및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부산 지역 정치 상황 속에서 처우개선 일변도인 아젠다의 한계와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 구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아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읽을 거리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p>「월간 복지동향」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박진제, 2024. 5. 14.</p> </div> </div>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내용	<p>1. 현황 분석</p> <p>수경</p> <p>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에서 특정 정당의 인사들을 전혀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부산의 민심은 이전에 겪었던 실패 때문에 대선 결과와는 달리 갈 수도 있겠지만, 시 의회에 대한 엉망이었던 이미지 등 지역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을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p> <p>지희</p> <p>긍정적인 소식으로, 최근 저희 지역 시의원님이 주도한 청년 사회복지사 관련 행사에서 정책 논의가 있었고, 시장님 이 시간외수당(5시간→10시간) 확대, 복지포인트(12만원→15만) 확대, 관리자 수당(월 5만원) 신설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어</p>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 내용

활동을

소개합니
다

느 정도 사협회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반영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시우

그러한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결국 돈 문제는 복지 전체 예산 규모 내에서 재배정 될 것이며, 핵심 문제인 인력 충원 계획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맞춤형 돌봄의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지금의 인력구조 하에서는 변화된 기능을 담아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수경

맞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시스템은 3개월에 한 번 전화하는 방문 주기로는 실제적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어르신이 사망하였으나 감지시스템이 다른 가족을 당사자로 인식한 시스템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돌, 응급, 일자리 사업 등이 참여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조적인 구멍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15년 정도 되었으나 예산 체계가 바뀌지 않았고, 중앙 정부에서 확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돌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현장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조적 딜레마와 아젠다의 한계 진단

수홍

이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전 우리 사회복지사의 아젠다가 처우 개선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명확한 아젠다로 성공했듯이, 우리도 처우 개선을 넘어서는 정책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처우 개선은 마땅히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윤정

문제는 협회가 힘이나 돈 없이 색깔만 드러내는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부산사회복지사협회가 색깔이 너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회원이 정치 참여에 공감하고 인식하는 선형 작업이 없다면 막연한 두려움만 커질 뿐입니다.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 내용

활동을

소개합니
다

수홍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위해 선한 역할을 했다는 '천사' 이미지를 갖는데 반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는 정당에 상관없이 선거 때마다 환심을 사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성공한 단체의 경우 아젠다를 하나의 방향성으로 몰고가는 힘이 있는 반면, 우리의 아젠다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갈래갈래 흩어져 있다는 한계 있습니다.

수경

노인복지관을 예로 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주요 전달체 개편 시 아웃사이더가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 관련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해당 사업의 수행은 결국 우리의 몫이 되고 있지요.

윤정

평생교육원들이 시니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평생 교육사를 채용도 해보았지만, 복지관은 실무와 어르신 돌봄 까지 수행해야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적응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를 바꿔말하면 사회복지는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전문성의 하락과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른 전문영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억 또는 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우리는 그 10분의 1 수준의 사업비 만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시우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쟁취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방법을 너무나 모르고 생경해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예산의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3. 정치세력화 전략 및 시스템 개혁 방안

수경

힘을 모으는 전략으로 넘어가 봅시다. 협회가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를 사회복지전문가적 관점에서 선점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 내용
소개 합니
다

활동 내용

기존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수홍

앞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힘은 모이지 않은 채 색깔이 드러나있다는 것이 위험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향력’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에서 10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 연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논점: 재정 및 운영 전략]

시우

당장 사협회비가 문제입니다. 다른 직능에 비해 연 5만원이라는 회비는 너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비가 비싸다, 협회가 회원들 개개인에게 무엇을 되돌려줄 것인가에 대해 요구하는 모습 등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단체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정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은 1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협회의 전체 예산은 120억 원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회비를 두 배(10만 원)로만 늘리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홍

앞서 연착륙을 얘기드렸던 것을 확장하면, 회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협회 보수교육에 정치 참여 관련 내용을 한 시간씩이라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여성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전략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 등 성별, 연령대별, 직능별 교육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희

이 과정에서 협회는 효과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홍보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사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정치인을 만나고 협상하며 정책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는지, 어떤 정책이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 내용

활동을

소개합니
다

제안되었고 성공률은 몇 %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법령, 조례가 있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수많은 회의를 진행하지만 실효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요구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2023년 추진한 1인 1정당 가입과 같은 최소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의 확보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단체의 성공사례를 보았을 때 52만명이라는 활동 사회복지사의 수는 엄청난 수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3% 즉 1만 5천명 정도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해야합니다.

윤정

전략적으로, 처우개선 아젠다를 버릴 수 없다면, 처우개선과 정책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한에 임박해 내어놓는 소수의 기관장 중심의 몇몇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직능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략적 제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완 논점: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수경

가장 큰 방해요소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이라는 구조이지 않나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장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위탁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아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하지만 ‘위탁’을 갖고 하는 위협에 무력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옹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우

법인, 시설장, 종사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비슷한 입장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분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 다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수홍

우리는 다른 직능을 옹호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간호사 파업 당시 우리는 그들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럴진데 우리를 누가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다른 직능과의 연대도 고민해야합니다.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윤정

협의회가 제기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부산시사회복지협의 회의 경우 주어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늘 단체연합회 뒤로 숨고 표면으로 사협회를 내세우는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희

개별 직능협회(노인복지관협회)도 일관적인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회장의 임기와 관련없는 전문조직으로써의 정책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종 결론 및 제안

- 당장 영향력 있는 세력화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며, 먼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
: 정치 교육, (대상별) 리더십 교육 등으로 아젠다 일원화
- 처우개선과는 분리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위상 정립
- 적극적인 참여자 1만 5천명 확보
-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목적성 예산 100억 확보
- 국내외 타조직들과의 연대 및 옹호 체계 구축



이슈와 농자

7회기

활동을
소개합니
다

활동
사진



이슈와 놀자

발행일

2025. 11. 00.

엮은이

조수경

지원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웹사이트

<http://www.kaswcs.or.kr/>

이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4.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